

공군

2009.02 | www.airforce.mil.kr Vol.368

Monthly Magazine **Air Force**

공군, 공군인 1
Best of Best!
2008 창공의 MVP

창군 60주년 특집 1
2월의 역사, 역대기종소개

특별기고
현직 기자들의 F-15K
탑승촬영기



뼈에 새긴 그 이름



그대를 보낸 뒤
내내 노심초사하였다

행여
이승의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저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기만 해도
갈비뼈가 어긋나고

마른 갈잎이 흔들리면
그 잎으로 그대의 이름을 썼다

청둥오리 뼈를 불러다
섬진강 산 그림자에 어리는
그 이름을 지우고
벽소령 달빛으로
다시 전서체의 그 이름을 썼다

별자리들마저
그대의 이름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바꿔 앉는 밤

화업경을 보아도
잘 모르는 활자들 속에
슬쩍
그 이름을 끼워서 읽고
폭설의 실상사 앞 들녘을 걸으면

밭자국,
밭자국들이 모여
복숭아뼈에 새긴 그 이름을
그리고 있었다

길이라면 어차피
아니 갈 수 없는 길이였다

이원규, 『뼈에 새긴 그 이름』, 『옛 애인의 집』, 숲, 2003



■ 시 : 이원규

1962년 문경 출생. 1984년 『월간문학』에 시 「유배지의 풀꽃」, 1989년 『실천문학』에 연작시 「빨치산 아내의 편지」 15편을 발표하며 등단. 시집 『빨치산 편지』, 『지푸라기로 다가와 어느덧 섬이 된 그대에게』, 『돌아보면 그가 있다』 등이 있다.

■ 시 해설

그대를 보내는 일이 이승에서 만나는 마지막 만남일지 모르는 그런 이별이 있지요. 그래서 머리칼을 스치는 바람에도 갈비뼈가 어긋나는 것처럼 아픈 이별. 흔들리는 마른 갈잎으로 그대의 이름을 쓰고 지웠다가는 달빛으로 다시 쓰는 이름. 별자리를 올려다보고 있으면 그 위로 그대 이름자 슬그머니 나타나고, 불경을 읽다가도 활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름. 그대와 함께 아니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동안 뼈에 새긴 그 이름을 생각합니다. - 시인 도종환



CONTENTS

2009.02

www.airforce.mil.kr Vol.368



표지설명 : 2008 공군 최우수 조종사, 김일환 소령

표지사진 : 사진작가 김운해
뒤표지디자인 : 조주영

공군 February 2009 No.368

발행일자 | 2009년 2월 9일(통권 제368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소위 기용호, 상병 이호용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04 [창군 60주년 특집 1] _ 2월의 공군역사
 _ 역대 주력 비행기 기종 소개 1
- 08 특별기고 _ 현직 기자들의 F-15K 탑승촬영기
- 12 부대동정 1 _ 군수사령부 새해 설계 지역발전에 역점
- 13 부대동정 2 _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합니다!
- 14 공군, 공군인 1 _ Best of Best! 2008년 창공의 MVP 탄생
- 21 PREVIEW _ 2월의 문화행사
- 22 공군, 공군인 2 _ 2008년 공군을 빛낸 인물
- 24 World-Wide Vision _ 새로운 전투 환경에 대응하는 공군인
- 28 참모총장 스케치
- 30 공군은 지금
- 34 e-Sports, <ACE> _ 무명 - 성학승을 보내며 -
- 37 책마을 _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 38 Bird-Alert! _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 뱀새
- 42 장동하의 décalcomanie _ 고갯마루
- 44 이등병이 쏜다! _ 뛰는 병장 위에 나는 이등병!!!
-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Hitch가 Hitch에게 "누구냐, 넌?"
- 48 생각하는 그림 _ 잊어서는 안 될 역사
- 50 우리, 건강합시다 _ 비튼 삼각 자세(Parivritta Trikonasana)
- 52 전재인의 일상茶반사 _ 찻잔 속에 담긴 충절, 고려 충신 정몽주
- 54 Letters to the Editor _ 2008년 12월 월간 「공군」을 읽고서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의 편집실

여자항공교육대 창설(1949년 2월 15일)

육군 항공군사령부(공군의 전신)는 여성들의 항공분야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방면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진출 시키려는 목적하에 1949년 2월 15일 여자항공교육대(대장 이정희 중위)를 창설하였다.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입대한 1기생 15명과 2기생 39명은 남자와 동일한 조건속에서 기본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정비, 통신, 기상, 조종 등 각 특기분야별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창공을 향한 원대한 비상을 차분히 준비해 나갔다. 그러나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군하면서 부대명칭이 여자항공대로 변경되었고,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7월 개편시 해편되었으며, 1954년 1기생인 김경오 대위 전역을 마지막으로 그 명맥은 단절되었다.



공군기술고등학교(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창설(1971년 2월 18일)

공군기술고등학교는 1971년 2월 18일, 공군간부학교(1969년 3월 1일 대전 기술교육단에서 창설)를 모태로 하여 개교하였다. 1960년대 중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부터 기술 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술하사관(부사관)의 전역희망자가 급증하여 1967년과 1968년에는 하사관 정원대비 약 30%까지 전역을 희망하게 되면서 장기복무 기술하사관 확보에 비상이 걸린 공군에서는 을종간부후보생(기술고등학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 진학이 곤란하고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자에게 3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고졸 학력을 부여하고 공군하사로 임용, 전문 기술분야에서 장기간 복무케 하여 전력증강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모집과정에서 만 15세 이상 17세까지의 소년을 군에 입대시켜 교육한다는 것은 당시 병역법에 저촉되었으며 고졸 학력을 부여하는 문제도 고등학교설치법에 위배되어 정식고등학교로 설립을 하지 못하자 공군에서는 1969년 3월 1일 대전 기술교육단에 공군간부학교를 창설하여 1969년 5월 5일, 제1기 을종간부후보생 250명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공군간부학교를 둘러싼 법적문제들이 관계기관 간에 원활한 합의하에 해결되고, 1970년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공군간부학교는 공군기술고등학교로 개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항공과학분야 전문인력(부사



관)을 양성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6월 26일 학교 명칭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40기) 최초로 여학생 15명을 선발하여 여성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제56공수비행단 GULF전 참전(1991년 2월 19일)

UN의 국제평화 노력에 동참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가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군은 1991년 2월 12일, 다국적군의 현지수송 지원 임무를 수행할 제56공수비행단(비마부대)을 창설하였다.

제56공수비행단은 2월 18일 서울기지에서 환송식을 갖고 2월 19일 조종사, 정비사 및 지원요원 등 병력 160명과 C-130H 수송기 5대로 아랍 에미리트의 알아인 기지로 이동, 현지에서 2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37일 동안 총 323소티(화물 713.3톤, 병력공수 1,405명)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4월 11일 해단식을 거행함으로써 작전을 종료하였다.



중국조종사 진보충 MIG-19기로 망명(1986년 2월 21일)

1986년 2월 21일 14시 26분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적기의 공습이 예상된다라는 긴박한 소식이 실제 상황임을 강조하며 다급하게 퍼져나갔다. 나쁜 오후의 정적을 즐기고 있던 많은 시민들은 갑작스런 실제상황에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제 상황임을 강조하던 정보는 중국공군 소속 MIG-19 전투기의 귀순시도로 밝혀지면서 14시 40분에 해제되었다.

이날 귀순한 MIG-19기 조종사는 중국공군 제1사단 4정찰단 소속의 진보충으로 13시 50분경 심양지역 상공에서 비행훈련 중 편대를 이탈하여 기수를 남쪽으로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 공군은 14시 12분경 평남의 대화도 상공 부근에서 급히 남하하는 적성항공기를 포착하여 예의 주시하던 중 우리 영공으로 진입해 들어오자 서해지역에 초계 중이던 전력을 투입하여 귀순의사를 확인 후 수원기지에 안착시켰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중국(대만)으로 망명한 진보충 조종사는 항공기를 이용한 6번째의 중국인 귀순사례로 기록되었으며 현재 대만 공군에서 상교(대령)로 근무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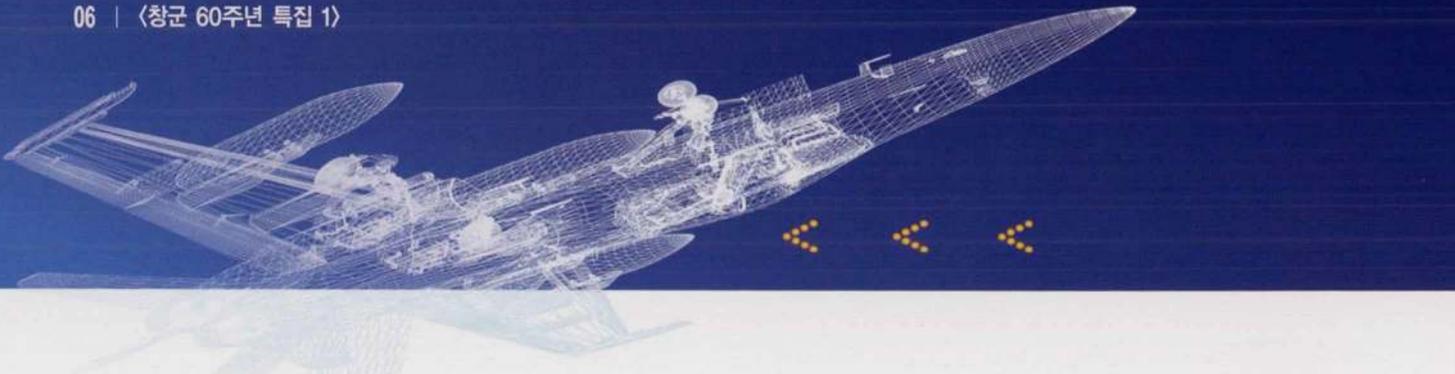


이웅평 대위 귀순(1983년 2월 25일)

1983년 2월 25일, MIG-19기의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자유의 품안에 안착한 이웅평 대위는 북한에서 김책공군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서 보장된 출세기도를 포기하고 귀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이웅평 대위는 대한민국 공군소령으로 임관한 뒤 정보부대에 근무하면서 북한공군의 전술과 교리 등을 교수하고 각종 연구 활동을 적극 진행하여 유무형의 공군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였다. ㉠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1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C-46D 항공기 인수(1955년 4월 29일)

1954년 한·미 양국이 우리 공군에 1개 F-86F 전투비행단과 C-46D 수송기전대 창설을 합의함에 따라 1955년 4월 29일 여의도기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C-46D 수송기 인수식과 조종교육 수료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6대를 인수한 C-46D 수송기는 미국의 Curtiss-Wright社에서 제작하여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통해 혁혁한 전공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공군은 총 44대를 도입하였다.

C-46D 수송기는 우리 공군의 주력 수송기로서 월남전과 각종 대간첩작전에 참가하여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나 기체의 노후화로 안정적인 임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73년 8월에 열린 공군 참모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안 뜨는 것이 좋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할 정도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던 C-46D 수송기는 우리 공군이 C-54D 수송기의 보유대수를 늘리고 C-123 수송기를 도입하는 등 공수자산을 질적으로 개선하자 1978년 퇴역하였다.

- ① 1970년 11월 군수사령부에서 제19기 공군사관생도 C-46 비행훈련이 실시됨
- ②, ③ C-46
- ④ 1955년 4월 29일 C수송기 인수식 및 조종교육 수료식
- ⑤ 대간첩작전에 투입된 병력을 C-46 항공기로 공수하고 있는 모습
- ⑥ 기체결함으로 동체착륙한 C-46D 수송기의 모습, C-46D 수송기는 기체의 노후화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⑦ F-86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모습
- ⑧ F-86D 전투기가 비행훈련을 위해 출동 및 이륙하는 모습
- ⑨ F항공기는 1972년 3월 퇴역시까지 전천후 요격임무 및 야간 방공임무 등의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C-46D Commando 성능¹⁾



최대속도(KTS)	200	실용상승한도(Ft)	25,100		
순항속도(KTS)	160	상 승 량	790		
항속거리(N/M)	1,300	승 원(명)	4		
전투행동반경(N/M)	450	후 퇴 각(도)			
제 원	기폭(Ft)	108' 1"	적재량		
	기장(Ft)	76' 4"		승객(명)	33
	기고(Ft)	21' 9"		화물(LB)	11,300
엔 진	종류	R-2800-51/75×2			
	추력(LB)	2,000 hp×2			

F-86D 항공기 도입(1960년 2월 10일)

1955년 6월 20일, F-86F 항공기 도입을 시작으로 제트 전투기 시대를 맞이한 공군은 1960년 2월 10일, 악천후 상황에서도 적의 도발을 억제·저지할 수 있는 전천후 전투기 F-86D를 도입하였다. F-86D 항공기는 1967년까지 총 45대가 도입되었으며 전천후 요격임무 및 야간 방공임무 등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다 1972년 3월 1일 퇴역하였다. ⑦

1) 출처 : 항공기 성능지 1971(공군본부 정보부 발간)



현직 기자들의 F-15K 탑승촬영기 1

- 내 생애 가장 긴 30초와 2시간 30분 동안의 한반도 상공비행

원고 정연호 기자 | 서울신문 사진부



데스크 : “연호, 이번에 비행기 함 타고 와라”

본인 : “네”

데스크의 오더에 여느 때처럼 어디 해외출장이라도 다녀오나 싶어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생각지도 못한 채…….

전투기 탑승! 정말?

이런 실없는 대답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을 사진기자협회에서 취재 내용과 일정을 전달받았다. 전달 받은 내용은 “F-15K 전투기 탑승취재”, 전투기 탑승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꽤나 들뜨고 흥분될 일인데 그것도 국내 최고성능의 F-15K를 타게 되다니…….

F-15K와의 첫 대면은 2005년 한국에 도입되어 첫 착륙하는 장면을 취재했던 성남비행장이었다. 그 때도 전투기 한 대의 총 무게를 금으로 환산해도 F-15K 도입가격보다 낮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기자들끼리 한참 했던 기억이 난다. 취재 당시 전투기 근처에는 접근도 못할 정도의 아우라를 뿜어냈던 F-15K였다.

“내가 꼭 타야 한다”

2명이 배정된 기자 중 훈련과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 1인만 탑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오랜만에 승부욕이 불타올랐다. 포털사이트에서 테스트에 대한 사전정보까지 찾아보며 이론준비를 하고 더불어 훈련 3일 전에 있었던 송년회에서도 술을 자제하는 등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

6G의 경험

이른 아침 기자단을 싣고 서울에서 출발한 차량은 웬지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항공우주의료원에 도착했다. 기자단은 오늘 받을 훈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긴장감을 털어보며 훈련을 기다렸다. 이론교육을 통해서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살바법(Valsalva's maneuver)과 L1 기법 등을 배우며 틈틈이 연습을 해보는 모습이 분명 기자단 단단히 긴장했다. 비상탈출훈련을 받고 드디어 중력의 6배 상태인 6G상태를 30초 동안 견뎌야 하는 중력가속도적응훈련의 순간이 다가왔다. 먼저 테스트에 응한 한 기자가 실신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그동안 꼭꼭 감추고 있던 긴장감이 긴 한숨과 함께 표출되었다. 훈련좌석에 착석한 후 레버를 당기기 전부터 심장은 이미 6G상태라도 느끼는 듯 심하게 뛰었다. 6G상태로 돌입. 정말 죽지 않기 위해 "흡! 흡!" 목이 설 정도로 L1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내 평생 가장 긴 30초를 경험하게 되었다.

중령으로 초고속 승진

12월 29일 대구 비행장에 도착해 사전장비를 지급받았다. 산소호흡기 하나 지급받는데도 입술크기와 얼굴크기까지 측정하는데 역시 과학적인 공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탑승기자들의 이름표까지 만들어 놓은 공군의 섬세함에 감동을 받았다. 훈련 이후 몇 주 동안 전투기 탑승에 대한 부담감이나 긴장감을 잊고 지내다 G 슈트를 비롯한 조종복을 지급받은 후 다음 날 탑승할 실제 F-15K 조종석에 착석하니 첫 비행에 대한 압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는 지급받은 조종복에 붙어 있던 중령계급장으로 예비역 병장제대 9년 만에 중령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며 농담을 하며 긴장을 떨쳐버린 후 조종사들과 갖은 브리핑에서 세세한 비행일정을 잡기 시작했다.

2시간 30분 동안의 한반도 상공비행

동이 트기 전 새벽 비행장은 긴장감 때문인지 더욱 쌀쌀하게 느껴졌다. 미리 지급받은 장비를 착용하고 오늘 함께할 조종사들과 비행신고식을 하고 전투기로 이동하였다. 격납고는 새벽부터 이륙준비를 하는 장병들이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었다. 조종석에 앉은 후 장비를 연결한 후 촬영 장비를 고정할 곳 등을 찾은 후 이륙을 기다렸다. 캐노피가 닫히고 전투기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활주로 이동했고 조종사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오늘 함께 비행할 다른 전투기 5대가 차례대로 시퍼런 불길을 뿜어내며 이륙할 때마다 카운트 다운을 하는 듯 속으로 5. 4. 3. 2. 1 숫자를 세던 중 6대 중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투기도 이륙했다. 속도내

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초 만에 전투기는 활주로를 떠나 공중으로 힘차게 이륙했다. 여객기가 이륙할 때의 기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묘한 기분에 취해 있을 틈도 없이 전투기는 포항 상공으로 이동해 있었다. 멀리서 붉게 퍼지는 여명이 보였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헬멧 때문에 카메라의 뷰 파인더를 보기가 힘들고 조종석 벨트 때문에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있어 순간 당황했지만 촬영이 용이한 위치로 이동해준 조종사 덕분에 다시 침착함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후 바라본 여명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느 것보다 훌륭했다. 일정한 대열을 이루며 그 사이를 지나가는 F-15K의 모습은 코가 시큰거릴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감동하느라 촬영하느라 후딱 지나가버린 20여분 후 편대는 부산 상공을 지나 남해 상공을 날고 있었다. 구간 이동간 여유시간에 편대대형도 바꾸고 그 모습을 위나 아래서 촬영하기 위해 조종사에게 비교적 까다로운 주문을 했지만 조종사는 싫은 내색 한 번 보이지 않았고 우리의 전투기는 어느새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었다. 2시간여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비행을 다 마치고 본대로 복귀하는 중 기자들은 욕심을 내서 태백산맥까지 비행해줄 것을 요구했고 멋진 태백산맥의 모습까지 촬영한 후 대구 상공으로 돌아왔다.

빨간마후라의 멋진 모습, 지금까지 내 머릿속 조종사의 이미지였다. 하지만 이번 F-15K 탑승 취재를 하면서 고개도 들기 힘들 정도의 중력을 견뎌내고 수 십개나 되는 기관을 동시에 확인하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비행을 하는 공군 전투조종사들, 앞으로는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는 모습 역시 본 이미지에 오버랩되었다. F-15K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현직 기자들의 F-15K 탑승촬영기 2

- 화염의 신공, 마하와 8.8G 사이

원고 임우식 기자 | SBS 보도국 영상취재팀



“Great ball of Fire”라고 외쳤다. 80년대 영화 “탑건”에서 주인공 탐 크루즈가 그랬다. 수많은 감탄사가 준비하지만, 영화를 본 이후 힘찬 전투기의 비행을 목격할 때면 난 항상 대부분의 조종사도 웬지 그 말을 외치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마하의 세계에 사는 조종사들은 이 땅 모든 청소년의 로망이지 않을까? 살고 자라면서 항공 비행에 대한 애착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다. 바닥을 기고 걷고 달리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를 탄 사람의 비행에 대한 동경은 본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이 좋게도 난 내 본능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작년 12월 30일, 난 하늘을 날았다.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기 F-15K를 타본 것이다.

공군에서 새해 최정예 F-15K를 탑승해 한반도 초계비행을 계획했다. T-50, KF-16와 관련된 보도는 더러 있었다. 하지만 F-15K의 경우 민간인이 탑승한 것은 처음이고 취재도 이전에 없었다고 들었다. 인원이 한정되어 방송사 출입자의 경우 취재기자는 탑승에서 제외되고 영상기자 중의 한 명만이 동승취재할 수 있다고 한다. 기자단 자체적으로 순번이 정해져 있어 문제될 건 없는데, 이번 취재의 경우 항공생리훈련을 통과한 인원만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일단 무리하게 한 명만이 훈련에 응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자칫 취재가 불가능할 수 있는 까닭에, 신문, 방송사 6명의 인원이 참가했는데 다행히 모두 통과했다. 예외라면 하필 중력테스트에서 기절, G-LOC(G induced loss of consciousness)한 게

바로 나라는 슬픈 사실, 운 좋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D-day는 원래 12월 29일이었으나 공군기상대의 30일이 시정이 더 나을거란 예보에 하루 연기했다. D-day 하루 전날, SBS, KBS 등 3개 방송사로 Pool 구성된 F-15K 취재팀은 대구 비행장으로 향했다. 비행단에서는 신체 사이즈에 딱 들어맞는 조종복과 G-슈트, 헬멧, 그리고 산소마스크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아울러 임무 편대와의 미팅을 통해 하늘에서의 비행경로를 확인하고 최상의 영상을 위한 취재진의 요구가 안전이 허락하는 선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했다. 미리 계획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창공에서 영상에 대한 이런 저런 요구는 지나친 욕심이 되어버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글루에서 F-15K를 접했을 때,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전투기 주변을 돌며 슬쩍 만져도 보며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를 살살이 훑어보았다. 이윽고 조종석에 올라가 보았는데, 그 등쪽은 마치 근육 발달이 잘된 보디빌더의 몸처럼 굴곡져 있고 군살 없이 매끈했다. 마침 F-15K의 이륙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몸으로 봤다는 게 정확하다. 어찌나 시끄럽게 대지를 울려대던지, 머리보단 몸이 꿈틀댔다.

당일 새벽 4시 30분, 밤새 잠에 들지 못한 채 뒤척이며 잔뜩 긴장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예보와는 달리 이른 새벽 대구기지에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애써 차분해져 보려 하지만 분명 떨고 있었다. 전날 미리 착용해 본 슈트를 입고 카메라 테스트에 만전을 기하며 이윽고 이륙을 준비했다. 컷가에 올리는 조종사들의 편안한 작전사인에 귀 기울이자 갑자기 3, 2, 1 굉음이 온몸을 울리며 내가 탄 전투기가 하늘을 향했다. 몸은 뒤로 쏠리지만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심장은 터질듯이 빨라지고 머리는 살짝 멍한 게 드디어 내가 날고 있었다. 전투기야 처음이지 비행자체의 경험은 술하지 않았던 내게 민항기에서 느껴지는 그 중력과 마찰의 억지스러움이 사라진 F-15K는 그 모든 자연법칙 너머에 존재하듯 순식간에, 그리고 가볍게 날 띄워주었다. 미칠 듯이 좋았고 아직도 누군가가 어땠냐고 물어올 때마다 난 그 이륙 순간만이 기억나는 듯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들어 보인다.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일출을 맞기로 했는데 하늘이 허락지 않았다. 항로를 부산으로 돌려 해맞이를 촬영했다. 신년 아이템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떠오르는 태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늘 볼 수 있기에 보지 않지만 볼 때마다 놀라

운 게 일출, 일몰인데, 4대의 전투기 뒤에 태양이 자리 잡자 촬영하는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마하의 속도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투기가 지상과 수평으로 날아갈 때 아무런 떨림도 흔들림도 없기에 영상취재에 있어 It's good enough!였다. 다만 가벼운 날갯짓에 중력테스트에서 실신의 여운이 몸에 남아있는 나로선 가볍지만 절대 사뿐할 수 없기에 한없이 긴장했다. 중력이 걸러올 때마다 자동으로 G-슈트가 부풀어 다리와 몸을 꽉 죄어 오는데, L1기법이라는 호흡법을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 창공에서 기절하는 순간 모든 취재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 상공에서 외나로도 우주센터를 거쳐 새만금, 천안 독립기념관, 태백산의 약 3시간 동안의 비행을 했다. 그 중 다양한 영상을 찍기 위해 배면 비행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조종사의 카운트와 함께 갑자기 찾아 온 그 몽롱한 가위눌림.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하지만 알고 맞았다 해도 몸이 겁을 먹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보다. 내 상태를 눈치 채셨는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 전투기, 그때 8.8G가 걸렸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2009년 새 해 첫 날, 뉴스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매체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훈련 중 내가 실신했을 당시의 화면들은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운 그림들이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을 기대해 본다. 몇 번의 술안주 혹은 농담속에서 녹아들 듯 말이다. 그러나 이번 F-15K 탑승촬영의 경험은 망각 저 너머로 잊혀지는 유통기한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㉑



군수사령부 새해 설계 지역발전에 역점

- 군 최초로 공장형 대팀제 도입, 능력위주의 조직관리 시행
- 군 최초 軍 책임운영기관 전환, 민간인 산하기관장도 임명가능

자료제공 군수사 정훈실 원고장리 편집실

군수사령부의 새해 업무구상이 공군 군수조직의 혁신적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군수분야의 생산성 증대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군수사는 <09년도 업무계획>과 6일 확정된 <09년도 군수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통해 새해 군수분야 중점추진 업무와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군 군수예산의 조기집행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수사령부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통상 후반기에 집중되었던 예년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물품 구매와 수리용역, 지역 군납업체를 통한 기지조달을 조기 시행하여, 오는 6월 이전까지 내·외자 조달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 내수경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수사는 내수진작 효과가 미흡한 급식, 유류, 수리부속 등을 제외한 부대 운영자재, 피복, 침구, 군장류와 부대비품, 행정용품 등 총 1,218억원의 예산을 전반기 이내에 조기 집행하게 되며, 70여억원 규모의 대구기지 시설공사도 전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군수사는 새해 들어 예하 정비창의 조직구조를 공장형 대팀제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험적으로 추진되었던 소팀제를 바탕으로 군수사령부 예하 81, 82항공정비창과 85정밀표준정비창, 86항공전자정비창 등 주요 정비창들이 공장형 대팀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계급구조 중심의 조직구조가 능력 위주로 전환되어, 하급자도 역량에 따라 팀장으로 임명되는 등 조직 운영상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장형 대팀제는 정비창의 조직 기능을 연공서열을 뛰어넘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임명된 유능한 팀장을 중심으로 재편, 중복되는 인력을 통합하고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집중 강화하여 배치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군 조직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웠던 팀제를 최초로 도입했던 군수사령부 82항공정비창은 지난해 340%의 경이로운 생산성 증대로 대팀제의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군수사가 올해부터 군 기관으로는 최초로 시행하는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도 혁신적인 조직운영 방식으로 군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역은 물론, 민간인 전문가도 군수사령부 예하 창의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유통분야 전문가들의 경영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금년에는 40보급창이 최초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83전자정비창 등을 대상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수사령부는 지난해까지 경북대학교와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440명의 6시그마 전문가들을 양성한 바 있다. 군수사령부는 올해에도 180명 이상의 6시그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경북대학교에 지속적으로 위탁 교육을 의뢰할 방침이다. ㉮



군수사령부는 새해를 맞아 공장형 대팀제의 도입과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 등 군 조직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조직 운영으로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합니다!

- 교육사,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

자료제공 교육사 정훈실 원고정리 편집실

교육사령부에서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사랑의 헌혈' 행사에 장병들이 동참하여 고귀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겨울철에 부족한 혈액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참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이번 헌혈 행사에는, 대한 적십자사 경남 혈액원의 도움과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헌혈차량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경남지역 부족 혈액의 상당량을 해소하는 한편, 응급환자용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병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사 항공무전대 윤창길 원사는 "헌혈은 인도적 차원의 사랑 실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신체 건강한 장병들이라면 누구나 헌혈에 동참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헌혈에 참여한 본부중대 이지원 일병(21세)은 "나의 건강도 체크하고, 혈액 부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헌혈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나에게는 작은 실천이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 앞으로도 헌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사에서는 대한 적십자사 경남 혈액원과 협조하여 희망자에 한해서 훈련장병 및 교육생들의 경우에는 교육 기간 중 1회씩, 기간장병의 경우에는 혈액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헌혈에는 총 323명이 참여하여 129,200cc가 헌혈되었으며, 이 양은 총 969명에게 수혈이 가능한 양으로 대한 적십자사 경남 혈액원이 보유한 혈액량의 13%를 충족시켜 주었다. (4)



헌혈 중인 장병들 모습



헌혈을 마친 장병들이 헌혈 증서를 들고 웃음 짓고 있는 모습

Best of Best!

2008년 창공의 MVP 탄생

- 김일환 소령의 香水와 鄉愁 이야기

글 김은진 | 프리랜서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2월, 시샘달... 달마다의 계절 인사를 더하고, 또 보태고, 어느 사이 겨울의 끝달이다.

손톱 끝에서 짧아지는 봉숭아 꽃물로 시간의 길이를 아껴 재듯 남은 겨울을 더. 더.. 더디.. 보내고 싶은 욕심.

그 욕심 앞에 잎새와 꽃샘보다 먼저 서둘러 공군 전 조종사들의 마음 맵시가 그 야말로 마음껏 시샘을 나왔다.

'2008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제20전투비행단 120전투비행대대 김일환 소령'
 김일환 소령(공사 41기, 비행대장, 주 기종 KF-16)은 한 해 동안의 비행경력, 비행훈련, 작전참가, 평가, 사격기량, 안전, 창의력, 근무/수상, 체력, 심의회의 등에서 1,000점 만점 중 총 814점을 획득, 조종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최우수 조종사

수상의 영광을 보듬었다.

그에게 쏟아지는 공군 전 조종사들의 고운 시새움과 축하 세례는 Power! Pride! Pro!를 비행단의 모토로 삼고, 3년 연속 최우수 조종사를 배출해낸 제20전비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축포일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궁금하였다.

종이비행기를 접었다, 그리고 그를 상상하였다.

흰칠한 키에 부정할 수 없는 룡다리! 서글서글한 눈매, 오탁하게 솟은 코, 빙그레 웃음 속에 드러나는 고른 이, 세월의 흐름을 증명해 보여야 할 5개월에 머물러버린 배, 유난히도 넓은 이마?

나는 종이비행기를 이륙시켰다, 그리고 이쁘게 착지했다.

그는 이제 한여름에 육수가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일까?

군살이 붙지 않은 마른 몸맵시에, 매의 시력을 가졌을 정 있는 눈초리, 빨간 마후라가 참 잘 어울리는 동안의 얼굴에 산소마스크 자국이 만들어낸 영광스러운 주름의 흔적이



그러졌다. 애기(愛機)와 대화를 나누듯 옆에 선 최우수 조종사의 환한 미소에서 읽혀지는 자신감, 굳게 다물어진 입술에서 느껴지는 흐트러짐 없는 군인의 자세.

풋사랑의 사연이라도 끄집어 내달라 조르면 한참을 뜬들이며 수줍은 미소로 대신 화답할, 소년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으시겠지 싶었다.

또 그의 설깃설깃한 아라미드 원단의 조종복과 조종 장갑에는 하늘 냄새가 잔뜩 배어 있을 듯 했고, 싸우는 매(Fighting Falcon, F-16)를 다루는 조종간을 잡은 손은 굳은살로 더욱 단단해 보였으며, 그에게는 특별한 향수(香水)와 향수(鄉愁)가 묻어날 듯도 싶었다.

그는 평소 그림을 좋아하여 미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육군 헬기 조종사이신 큰 매형의 추천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41기 생도로서 조종사가 되어야겠다는 소중한 다짐을 곁에 두게 된다.

1989년, 드디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자, 김일환 메추리는 럭비부로부터 스카우트를 받는다. 그 당시에도 비교적 건장한 체격 조건을 지니고 있어, 격한 사내들의 운동인 럭비부에서 맹활약을 했다고 한다. 공사 시절의 기억, 그 옛날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애교 섞인 질문에 김일환 소령은 3사 체전이 격렬했던 청년 시절의 땀내와 향수(鄉愁)를 짙게 떠올렸다.

지금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종전의 3사 체전을 대신하여 문화 교류 행사인 3사 친선 행사가 열리고 있으니, 새내기 조종사 후배들에게 김일환 소령의 향수(鄉愁)는 옛날, 옛날에 하는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타원형의 공을 향한 치열한 몸싸움으로 머리에 봉대까지 두르고 뛰게 만들던 3사 체전에서 그 옛날의 김일환 생도는 미래 국가 안보의 중추를 담당할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친한 우정을 다지며 미리부터 팀워크를 배운 셈이다.

지난 1994년 F-4E로 조종에 몸과 마음을 담게 된 김일환 소령이 2000년 4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Black Eagles)의 팀원이 된 것도 럭비를 통해 몸으로 배운 팀워크의 실천이었을 것이다.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은 선발 단계에서부터 남다른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강인한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비행



성적 우수자들만이 1차적인 선발 대상이 되고, 2차적으로 총 팀원 9명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블랙 이글스의 멤버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이력이 아닐 수 없다.

여태 말을 아끼던 김일환 소령이 블랙 이글스의 향수(鄉愁)를 펴뜨리기 시작했다.

“블랙 이글스는 다양한 곡예비행을 통해 조종사들의 조직적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 기량을 선보이는 공군 특수비행 팀입니다. 블랙 이글스의 특수비행은 단순한 묘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불란한 고난도의 기동을 통해,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과 공군의 단결된 모습을 구현하여 공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창설되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공군과 조종사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당시 블랙 이글스팀에서 8명을 뽑아 6기를 운영했습니다. 일단 팀워크가 가장 중요시되고 기본적인 자질에서 검증을 받은 조종사만을 선발하기에 그 일원이 되었다는 점에 감사했습니다.”

2001년, 당시 대위였던 김일환 소령은 블랙 이글스 팀원으로서 서울 에어쇼에 참가하게 되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곡예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자신들을 위해 환호와 탄성을 질

러준 어린 친구들을 위해 마련된 팬 사인회에서 김일환 소령은 꼬마 조종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한 학생이 사인을 곱빼기로 부탁해 왔다. 친구와 함께 오려 했는데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단다. 그래 그 친구 몫까지 사인을 해달란다.

몇 달 후, 인천의 어느 작은 동네를 걸음하게 된 김일환 소령은 허름한 문구점에 음료를 사기 위해 들어갔다. 집안에 자신의 사인이 된 2001 서울 에어쇼 팸플릿과 마주하게 되었다. 반갑고, 또 궁금도 하여 슬며시 주인아주머니께 그 사연을 물으니,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의 꿈이 조종사란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이 에어쇼에 못 갔단다. 대신 친구 녀석에게 부탁을 해서 팸플릿을 가지고 있는 거란다. 그 블랙 이글스의 사인이 들어간 팸플릿을 받고나서부터 아들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 생활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김일환 소령은 특별한 인연을 선물 받은 듯 싶어 얼른 내가 좌측 후미에서 에어쇼를 펼쳤던 조종사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 어린이가 자기를 동경해하며 눈을 못 마주치

「2008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이렇게 선발했다!

- 비행훈련, 비행경력, 작전참가 등 10가지 필수요소 종합평가
- 1979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30번째 배출

지난 1979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공군 최우수 조종사」는 조종사들의 사기진작과 정예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왔다. 각 비행대대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일선 조종사를 대상으로 엄중한 평가를 거쳐 선발함으로써 조종사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명예이기도 하다.

최우수 조종사는 비행훈련, 비행경력, 작전참가, 사격기량, 창의력, 체력 등 조종사들에게 요구되는 10가지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1년 동안의 조종사 개인별 실적을 종합하여 선발하며,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비행훈련	260	안 전	90
비행경력	120	창 의 력	50
작전참가	100	근무/수상실적	50
학술지식/전술임무 평가	100	체 력	30
사격기량	100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100
총 점 : 1,000점			

첫째, 조종사로서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기본은 '비행훈련'이다. 그러므로 우수 조종사 선발에서도 비행훈련이 1,000점 만점에 260점이라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한다. 연간 주야간 비행시간, 야간 근접항공지원이나 공격편대군 훈련과 같은 실전적 훈련 성과 등을 종합해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둘째, 비행경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조종사가 된 이후 총 비행시간, 전술무기 교관과정이나 고등전술훈련과 같은 비행전문교육 경력, 야간 저고도 항법 및 표적 추적 장비와 야간 투시경 등 특수자격 보유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셋째, 실제 작전에 대한 참가결과이다. 영공방위는 조종사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갖춰 실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우수 조종사 선발에 있어 적성 항적 요격, 탐색구조, 비상대기 긴급출동 등 실제 작전 참가결과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이외에도, 실전적 전투능력을 보여주는 사격기량, 비행과 관련한 학술지식과 전술임무 능력, 대대의 비행안전 실태와 개인 무사고 비행기록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각종 혁신안 제안이나 전술개발 연구실적과 같은 창의력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터란다. 그 모습을 보고 김일환 소령은 '나' 라는 존재가 어린 아이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일 수 있고, 그 어린이의 인생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동기 부여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큰 감흥을 받게 되었다.

"그 때가 지금껏 조종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입니다."

최고의 조종사라는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블랙 이글스에서 죽음을 살아낸다 할 정도의 긴장과 인간 체력의 한계에 도전했던 김일환 소령의 수고로움은 참으로 값진 쪽빛 청춘의 향수(鄉愁)가 아닐 수 없다.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모습이기를 꿈꾸는 어린 아이에게 창공에 대한 꿈의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로운 것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김일환 소령 또한 그 어린 조종사에게서 새로운 도전 정신과 용기를 얻어 가졌을 게다. 그렇기에 최고의 조종사에서 지금의 최우수 조종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깨비(Phantom, F4-E)를 몰고 다니던 김일환 소령은 2003년 KF-16으로 기종을 전환하게 된다. 그가 2003년 3월 21일의 그림일기를 공개했다. 기종 전환 후 얼마되지 않아 겪은 에피소드에는 그 날의 향수(鄉愁)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1 김일/한기, #2 박정/COM.

"거 이상하네~~"

"아무리 놀러도 GUN/STRF이 A·G/CCIP로 바뀌질 않네...???"

"MFD 고장인가???"

2003년 3월 21일 ...



이륙 전 L·C·I에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

"거 이상하네~~"
"아무리 놀러도 GUN/STRF이 A·G/CCIP로 바뀌질 않네...???"
"MFD 고장인가???"

이륙 전 L·C·I에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모르는 소리지만, 대대장과 함께 뜨는 비행에서 무장 점검을 하는 상황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2,40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김일환 소령에게 문득 수상 소감을 물었다. 당연한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최우수 조종사 수상 소식을 전해 들어 오히려 담담했다는 속엣말을 전해왔다. 최우수 조종사는 한 개인의 노력보다는 20전비, 그리고 120대대 동료 조종사들과 지원 대원들의 노고가 더 컸다며 그들에게 수상의 영예를 돌리는 겸손함도 보이셨다. 김일환 소령의 수상 소식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10살 터울의 큰누님이란다. 유년기에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며 장남이었던 김일환 소령에게 항상 마음을 많이 쓰셨던 큰누님께서 크게 좋아하셨단다.

김일환 소령은 비행대대에서 활주로까지 가는 길에 항상 안전하고 원활한 임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린다. 동료들끼리는 "서로들 오늘 잘 하자!"며 비행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는다. 삶과 꿈의 자리에서 힘이 들

때 소리 없는 응원이 되어주는 멘토로는 역시 가족과 동료들
 꼽는다. 군인의 아내는 반(半)군인이라 했다. 아내의 가정에
 대한 훌륭한 내조가 없었다면 김일환 소령에게 오늘의 영광
 의 자리는 불가능했으리라.

날마다의 하루를 살아내는 조종사의 길은 매 순간 힘이
 든다. 이 하늘, 이 바람, 이 땅을 같이 누리면서도 “좋은 일
 기(日氣)이다.”, “낮게 몽글몽글 영기는 분홍빛 구름이 고우
 다.”, “오늘 바람이 맛나다!”, “오늘 바람이 그 날의 바람과
 꼬옥 같았다.”는 낭만에 젖어들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조종
 사들은 하늘에서 단 한 번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법이
 없다. 변화무쌍한 하늘 사정에 계획했던 대로 흐름을 타
 는 것, 비행 후 스스로에 대한 평가의 순간 임했을 때 김일환
 소령에게는 아직도 비행이 어렵다.

김일환 소령은 후배 조종사와 병사들에게도 존칭을 쓰고,
 자신의 ‘살이’에 꾸밈이 없는, 그야말로 知, 德, 勇을 고루
 갖춘 최우수 조종사다. 비행대장의 직책에서 비행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함을 알고, 모든 조종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료들과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약점을 공유하
 여 상호 이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다.

앞으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김일환 소령은 다

양한 경력과 이력을 통해 얻은 풍부한 이성적, 감성적 경험
 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군 전체의 발전과 후배 조종사들에
 게 도움이 되고자 정책이나 작전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는 소박한 꿈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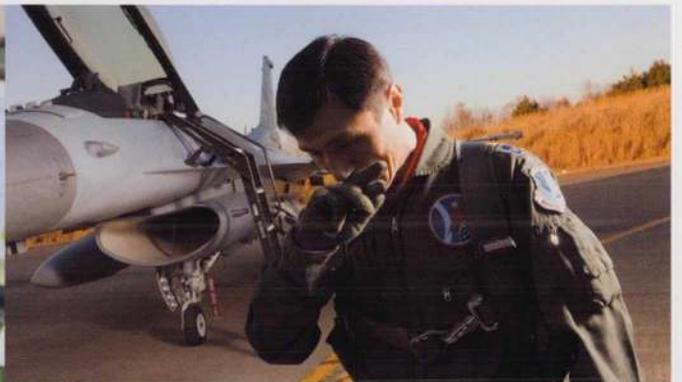
그가 다녀간 밥집을 찾아가 그가 주문한 음식을 먹고,
 그가 옮겨간 찻집을 찾아가 그가 주문한 차를 마시고,
 그가 지나간 자국을 더듬어 따라가 보던 적이 있었다...
 슬그머니 어느 누가 나의 지나온 자리를 밟아줄까? 라는
 욕심을 비추게 되는 건 나도 김일환 소령을 모델 삼아 내 몫
 의 삶과 꿈의 주인이고 싶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파란 하늘 여백 위에서 넉넉한 자유 누리는 거룩한 즐거
 움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일환 소령의 최우수 조종사 수상은 조종사를 꿈꾸는 꼬
 마 조종사, 최우수 조종사를 꿈꾸는 진정한 파일럿들에게 꽃
 나무 가지가 예쁜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위해서 겨우내 시리
 도록 찬바람을 견디어내는 자세를 닮으라는 가르침을 조용
 히 전하고 있다.

해거름녘, 매직 아워(magic hour)를 가르는 김일환 소령
 의 애기(愛機)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이리 속살거릴 것이다.

"I'm your fan~♥" 🇰🇷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스트레스 받았다면 받아버리시라!

스트레스에 묻혀 살다 스테인리스가 되어버린 어느 댄서 이야기, 연극 <강철왕>

만약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사람이 스테인리스가 되어 버린다면?

직장 생활을 거부한 채 춤만 추는 댄서 왕기의 이야기이다. 자수성가한 왕기의 아버지 성국은 자신이 운영하는 열처리 공장의 차기 후계자로 왕기를 지목하고 집요하게 아들을 설득한다. 결국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왕기는 열처리 공장에 취직하지만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새로운 젊은 경영자를 경계하고 오해한다. 노동자들이 잘못 작동시킨 열처리 기계 때문에 몸이 스테인리스로 변하는 과정이 삭막한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얼마 전 연극 <마리화나>를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린 고선웅이 직접 작품을 쓰고 연출했다. 댄서가 주인공인 만큼 주인공이 춤을 출 때 흐르는 음악이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연극이지만 마치 무용공연에 온듯 몸의 언어를 맘껏 접할 수 있다.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는 원칙 아래 만들어진 연극 <강철왕>, 그 선량한 에너지가 묻쳐서 이 곤란한 시대를 한방에 날려버리기 원한다면 예매에 서두르자. 울 겨울,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기에 안성맞춤인 작품이다.



기간 : 2월 15일까지

장소 : 서울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가격 : 일반 3만원/대학생 2만 5천원

홈페이지 : www.mabangzen.com

플라멩코의 뜨거운 발구름이 차가운 심장을 두드린다

세기의 옴므 파탈, 뮤지컬 <돈 주앙>

뮤지컬 <돈 주앙>은 스페인의 전설적인 옴므 파탈 돈 주앙의 삶과 사랑,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정적이고도 강렬한 라틴 풍 음악이 화려한 플라멩코와 함께 펼쳐진다. 프랑스의 국민 가수이자 작곡가인 펠릭스 그레이가 극본과 작곡을 맡아, 2004년 캐나다 초연 당시 이미 사전에 40만장 이상의 앨범이 판매될 정도로 선율이 매력적이다.

이번 한국어 공연은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아시아 최초의 라이선스로 제작된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태양의 서커스-자이아> 등에 참여한 프랑스와 캐나다 스태플들, 오리지널 스페인 플라멩코 댄서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 내내 흐르는 이국적인 분위기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최근 영화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주지훈이 돈 주앙을 맡아 볼거리를 더한다.



기간 : 2월 6일 ~ 3월 8일까지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 11만/R 9만/S 7만/A 5만/B 3만(주말은 +1만원씩)

홈페이지 : www.musicaldonjuan.co.kr

2008년 공군을 빛낸 인물

- 고주원 · 한효주, 공군홍보대사로 활약한 공로 인정받아 <협력 부문> 수상자로 선정
- 7개 부문에서 공군 위상 드높인 단체 5팀, 개인 3명 수상 영예 안아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원고정리 편집실

지난 1년간 공군홍보대사로 활약한 탤런트 고주원 · 한효주 씨가 '2008년 공군을 빛낸 인물' 협력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공군은 고주원 · 한효주 씨를 비롯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공군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공군인인 '2008년 공군을 빛낸 인물'을 선정하고 1월 22일 공군본부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는 F-15K 최초기 도입 이후 2년 9개월 동안의 전력화 과정을 통해 전 · 평시 요구되는 작전 수행능력을 완벽히 구비하고 지난 7월 1일 정상작전에 돌입한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가 선정되었다.

122전투비행대대는 지난 8월 美 넬리스 기지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에 참가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며, 지난 9월 열린 건군 제60주년 기념 합동화력시범에서는 F-15K 전투기의 우수성과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 능력을 입증하였다.

<희생 · 봉사 부문>은 총 5회에 걸쳐 다이만 부대 파병임무를 마친 제15훈련비행단 김대형 상사가 차지했다. 김 상사는 지난 2004년 C-130 항공기 기관정비담당으로서 58항공



공군회관에 걸려있는 공군홍보대사 한효주, 고주원 래핑(Wrapping)

수송단 1진 선발요원으로 처음 파병에 참가한 이후, 3·5·7·9진에 재파병되어 2008년까지 총 26개월이라는 파병기간동안 열사의 나라에서 세계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했다.

<신지식 · 정보화 부문>에서는 손가락 크기에 테라 바이트급(1테라 바이트=1,000기가 바이트)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비휘발성 F램 개발의 길을 연 공군사관학교 장기석 중령이 수상했다.

장 중령은 美 콜로라도주립대 방문연구교수 시절인 2000년부터 나노기술과 나노과학을 연구했으며, 2005년부터는 전북대, 서울대, 서강대 등과 함께 공동 연구하여 지난 6월에는 꿈의 메모리로 불리는 F램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Nano Letters)에 게재하였다.

또한, <조직운영 발전 부문>은 공군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이룩한 성과를 공인된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업무를 추진한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책관리처에서 차지했다.

「2008년 공군을 빛낸 인물」 수상자 명단

부 문	수 상 자	비 고
전투력 발전(도전)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	단 체
희생 · 봉사(헌신)	제15훈련비행단 상사 김대형	개 인
신지식 · 정보화(전문성)	공군사관학교 중령 장기석	개 인
조직운영 발전(팀워크)	정책홍보실 정책관리처	단 체
체육 · 문화	계룡대근무지원단 공군의장대	단 체
협력	공군홍보대사(고주원, 한효주)	단 체
	경상북도 울진군청	단 체
특별상	이원복(예, 대령, 부활호 복원 기여자)	개 인



왼쪽부터

- 전투력 발전 부문(단체) -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장 이영수 중령
- 신지식·정보화 부문(개인) - 공군사관학교 장기석 중령
- 협력 부문(단체) - 경상북도 울진군 부군수 박기원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 특별상 부문(개인) - 이원복 (예) 대령
- 조직운영 발전 부문(단체) - 정책홍보실 정책관리처장 윤흥기 대령
- 체육·문화 부문(단체) - 계룡대근무지원단 공군의장대장 서창성 중령(진)
- 희생·봉사 부문(개인) - 제15훈련비행단 김대형 상사

정책관리처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군은 '2008 대한민국 BSC대상', '2008 국가생산성 대상' 등을 수상하여 공군의 조직운영 효율성 및 성과창출 방식에 대한 대외공인과 함께 '창조적 실용군대 육성'을 위한 공군의 선도적 역할을 대내외에 입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책관리처는 지난 7월 3일 '조종사의 날' 선포식을 주관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공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군내외 각종 행사에서 절도있는 공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군의장대'는 <체육·문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공군의장대는 지난 한해 공군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와 '독도 수호'를 상징하는 의장대형을 만들어 강력한 국토수호 의지를 형상화하였다.

특히, 의장시범 중 인기그룹 원더걸스의 히트곡 '텔미(Tell me)'를 배경음악으로 새로운 형태의 동작과 대형을 선보여 인터넷상에서 '텔미 의장대'로 불리며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10위 안에 랭크되는 등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협력 부문>에는 바쁜 일정에도 공군홍보대사로 활약한 텔런트 고주원, 한효주 씨와 11년만에 실시한 비상활주로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울진군청이 선정되었다.

고주원, 한효주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서울에어쇼 행사장에서 실시한 위촉식을 통해 공군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2008년 5월에는 KA-1 항공기에 직접 탑승하여 언론을 통해 소감을 밝혔으며, 공군 포스터 및 홍보사진을 촬영하여 공군회관 건물 외부 랩핑, 전광판 광고, Space Challenge

대회장 홍보, 공군 달력 이미지, 모병 광고 이미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국민들이 공군에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월간『공군』 및 웹진『공감』 등을 통해 공군 장병들에게 건전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군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공군 장병들이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양하는데 일조하였다.

울진군청은 비상활주로 주변 무단건조 그물 및 어구 정리, 비행안전을 위한 수목제거, 비상활주로 외부 유입물 제거 작업시 소방차 지원 등으로 11년만에 실시한 '비상활주로 이·착륙 및 재출동 훈련'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공군은 '부활호'의 최초 설계자인 이원복 예비역 대령에게 '2008년 공군을 빛낸 인물' <특별상>을 수여한다. '부활호'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공군이 1953년 사천 공군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제작한 2인승 경비행기이다.

지난 '04년 1월 대구 경상공고 지하 창고에서 기체의 골조 등을 찾아내 81항공정비창에서 다시 설계·조립하여 복원에 성공한 '부활호'는 지난 10월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는 공군사의 기념비적인 쾌거로서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인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뜻 깊은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계훈 참모총장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공군인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㉞

NEW AIRMEN FOR A NEW WORLD



새로운 전투 환경에 대응하는 공군인

- 발전되어 가는 합동전투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공군병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2주 반의 훈련기간이 공군 기초 군사훈련에 더해진다 -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김원봉

냉전시대는 지났지만, 새로운 전쟁들이 냉전을 대신한다. 새로운 전쟁은 테러리즘에 대한 걱정이다. 미사일들은 급조 폭발물로 대체되었고, 쉽게 식별이 가능했던 적들은, 이제 더 이상 쉬운 상대가 아니다. 전투양상은 새롭게 변했으며 오늘날의 공군병사는 이에 따라 진화해야만 한다.

이 사안을 인지한 공군의 지휘부는 공군의 양성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텍사스 주 랙랜드 공군기지의 기초 군사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날의 공군인은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임하고 있다.”

- 에드워드 웨스터멘 대령

“오늘날의 공군인은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군 기초 군사훈련단장 에드워드 웨스터멘 대령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적절한 훈련을 통하여 공군병사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현재 적극 반영이 되고 있다. 기초 군사훈련은 2008년 11월부터 6주에서 8주 반의 훈련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추가적 훈련기간은 새로운 ‘전사적’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공군병사들을 학과실로부터 벗어나 야전에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BEAST” 훈련

기초훈련에 가장 확연한 변화는 바로 BEAST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Basic Expeditionary Airman Skills

Training의 약자로, 기본 원정 공군병사 기술 훈련을 의미하며 공군병사에게 합동 원정 개념의 교육 및 파견 시나리오를 숙지시킨다.

“이 훈련은 공군병사들이 기본군사훈련 기간에 받는 모든 훈련을 종합한다고 할 수 있다. 훈련병에게 그들이 받은 교육을 실전적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웨스터멘 대령은 설명하였다.

새로운 2천8백만 달러의 원정 기술 훈련은 기존 기본군사훈련의 “전사 주간”을 대체하며 “텐트 시티”로 불리는 네 개의 야영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600명에서 900명 정도의 훈련병을 수용하며 훈련 지역에 가상으로 파견되어 실전 상황에 대응한다. 이러한 도전은 야전 보안 확보, 캠프 보호를 위한 통합 전투 위치 사용, 출입통제절차 숙지 및 시뮬레이션된 공격을 받는 도중에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본군사훈련에서 최대한의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웨스터멘 대령은 말한다.

이러한 실제상황과 가까운 경험을 통하여 훈련병들은 그들이 교실에서 얻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련병들은 호위 임무 수행을 하며 파병된 미군 병사들이 종종 경험하는 박격포 공격, 기지 공격, 급조폭발물 및 불발 폭탄 등의 상황에 근접한 경험을 한다. “그들은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고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고 737훈련지원대대의 막달레나 코르테즈 윈사가 말한다.

BEAST는 훈련병들을 기본적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과 주변의 동료들을 돌보는 방법을 숙지시킨다. 종전에 훈련은 2시간 분량이었으나, BEAST를 통하여 16시간으로 증대되었다.

BEAST 훈련의 마지막 날, 모든 긴장은 극대화 된다. 이 단계에서 훈련병들은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후각적으로 전투 시와 동일한 상황에 대면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을 현대전의 복잡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오늘날의 공군 파견 활동은 이러한 훈련을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많은 공군병이 특기교육 후, 첫 파견지에 가서 빠른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군 관련자들은 85%의 공군장병이 적어도 한 번은 해외파병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이 적지이다. "공군장병들은 실전적 전사들이며, 위험한 합동 전투 활동에서 미국의 승리를 위해서는 공군장병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로드니 맥킨리 공군기지의 주임원사가 말했다.

동시에 공군장병들은 더욱 더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6,000명 이상의 공군병력이 지상에서 수용 작전, 폭발물 처리 작전 및 호위, 그리고 지역 재건 활동 등의 새로운 지상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군의 지상 및 공중에서의 지원이 없다면 미국의 전투노력은 단번에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게이츠 장관이 말하였다. 덧붙여 공군병의 기초 군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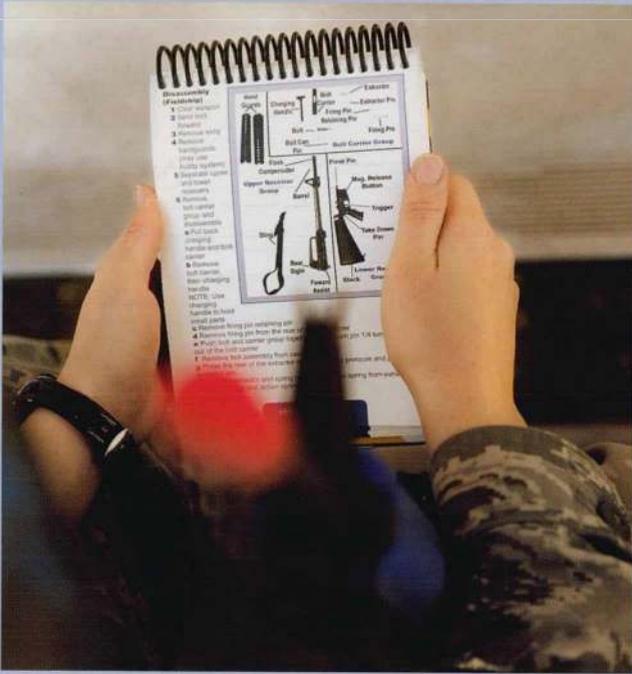
기본군사훈련 단계의 훈련병들이 아전 훈련 도중 '급조폭발물선'을 따라 진군하고 있다. 이 훈련은 텍사스 랜랜드 공군기지 기본군사훈련과정 도중 이루어진다.

련은 미국 내외의 국가적 이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군력 양성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미국이 안전하고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기본군사훈련 관련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공군병 기본군사훈련의 중요성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전투 환경은 공군병사들이 기본적 전투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군사훈련 감독인 케빈 루드비히 원사는 말한다. "새로운 기본군사 훈련 방식이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 또 공군병들이 복무기간 도중 발전시켜야 할 기술의 기본을 숙지시킵니다."

오른쪽 사진은 기본 원정 공군병사 기술 훈련 (BEAST)코스다. BEAST는 2주 반의 추가된 기본군사훈련 기간 도중 이루어지며 '전사 기간'을 대체한다. 이 2천8백만 달러가 소요된 코스는 4개의 지역으로 나뉘며 이들은 '텐트 시티'라고 불린다. 각 지역은 공군병사가 실전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0개의 텐트, 한 개의 하드 셀터(대피소) 및 한 개의 타워로 이루어져 있다.





훈련병이 "공군 매뉴얼"을 읽고 있다.



텍사스에서 훈련병 소대가 그들의 무기를 검사하고 있다.

전사의 양성

"전사양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BEAST뿐만이 아니다. 추가된 두 주 반의 기본군사훈련과정은 다양한 원정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전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다양해진 전투 양상을 반영한다.

코르테즈 원사는 훈련병들이 실전적 경험을 통하여 그동안 얻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8주 반으로의 연장된 훈련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훈련병들은 이제 M16라이플과 M-9권총을 사용, 관리 및 발사할 수 있도록 배운다. 공군전통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새로운 합동 전투 모듈이 추가되었다. 기본적 호신 훈련 또한 문화적 갈등 내지 대인관계가 군대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개별적 훈련

이러한 변화는 훈련병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관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늘어난 훈련기간은 더 많은 교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관들이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이전에 교관들 스스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종종 묵과되는 사실 중 하나는 교관이 지도하는 모든 훈련은 교관 스스로가 먼저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드비히 원사가 말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교관들을 변화에 적응하도록 그들에게 더욱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훈련관계자들이 교관이 되고자 하는 자원을 찾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훈련 기간이 이제 몇 주 길어진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웨스터먼 대령이 말한다. "만약 교관이



훈련병들이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다.

되고자 하는 병사가 있을 경우, 지금 이 시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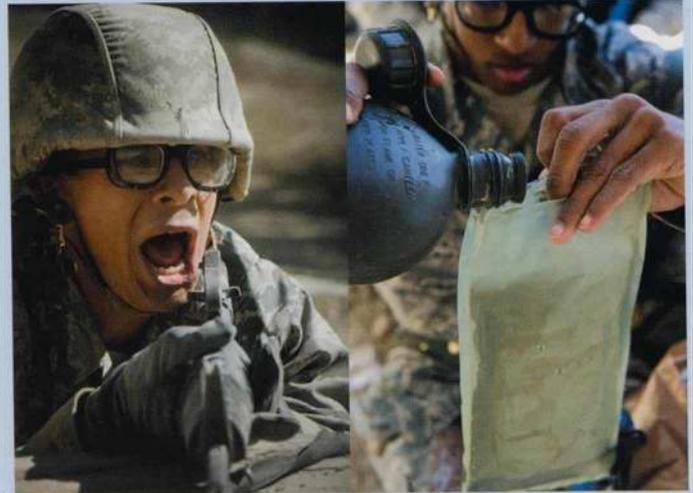
변화의 시간

기본군사훈련의 변화는 변화 그 자체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필요한 변화이며 미리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737훈련대대는 말한다. “개인적으로, 이 변화는 기본군사훈련단이 겪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공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동시에 효과적이고 유용하며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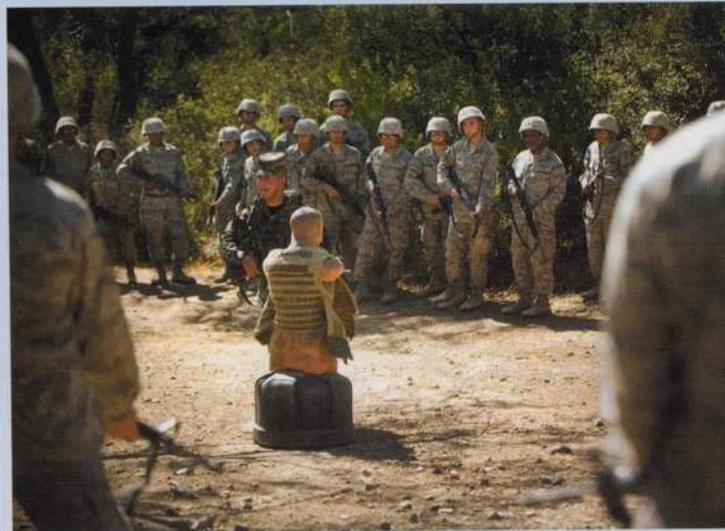
공군 관계자들은 몇 년 전 당시 공군참모총장 존 점퍼가 복무 초기부터 전투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기본군사훈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당시 기본군사훈련을 3년마다 주기적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당시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젊은 병사와 여군을 훈련 시켜서 오늘날 공군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었다.” 웨스터먼 대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에 대한 해답은 시작부터 탄탄한 기초를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통하여 마련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변화하는 전투양상에 발맞춰, 미래의 공군인은 새로운 합동 전투 환경에서 항상 유능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다. ●



훈련병이 전술 강습코스 도중 그의 워맨을 호명하는 동시에 호위사격을 하고 있다. 전술 강습코스는 훈련병의 방어 전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숙지시킨다.



에드워드 로저노 하사(중임)가 훈련병들에게 전술 강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로저노 하사는 737훈련지원대대의 교관이다. 전술 강습코스는 훈련병들의 방어 전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숙지시킨다.



아전 훈련 도중 훈련병들이 방어 전투 위치에서 모래 병커에 보호태세를 취하고 있다.



훈련병이 화학방 훈련 도중 마스크를 벗어 방독면의 중요함을 배우고 있다.

Hot SKETCH



◎ 새해 첫 일정, 대전 현충원 참배

참모총장은 1월 1일, 공군 창군 60주년의 희망찬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여는 첫 발을 내딛으며, 공군본부 참모 및 공군본부 지역 직할 부대장, 신분별 대표 등 40여명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순국정신을 기리며, 전 공군인과 함께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육성을 위해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신년 맞아 비상대기 근무부대 격려 통화

참모총장은 1월 1일, 오전 충(忠)과 부(富)를 상징하는 기축년 새해를 맞아 제17전투비행단, 백령도·울릉도 관제대대, 춘천 방공포대와 격려통화를 실시하며 휴무일에도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F-15K 신년 지휘비행

참모총장은 1월 5일, 제11전투비행단에서 대한민국 공군 최강의 전력인 F-15K로 신년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평소 실전적인 강한 훈련을 강조해 온 참모총장은 이날 지휘비행을 통해 평소 작전 대비태세와 전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공군' 육성을 위한 고강도의 교육훈련 성과를 점검했다.



◎ 합참·각 군 합동보고 및 토의

참모총장은 1월 8일, 계룡대 육군대회의실에서 실시된 합참·각 군 합동보고 및 토의에 참석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우리 공군이 군 재조형의 취지 및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 공군-P&W사 협조체제 강화

참모총장은 1월 13일, 공군본부를 방문한 P&W사 토마스 파머(Thomas E. Farmer) 군용엔진 사장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우리 공군의 F-16 항공기 운영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준 P&W사측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앞으로도 공군-P&W사 간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日 항공막료감부 방위부장 접견

참모총장은 1월 14일, 일본 항공막료감부 방위부장 히라타 히데토시(Hirata Hidetoshi) 소장 일행과 한·일 공군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이라크 공군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1월 14일, 이라크 카말(Kamal Abdulsattar Abdulfattah Al-Barazanchi) 공군사령관과 한-이라크 공군간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308관제대대, 최남단 공군부대 제설작업

2009년 1월 10일, 최남단 공군부대인 제308관제대대에 새해 첫 눈이 쌓였다. 이렇게 눈이 쌓이는 건 드물기 때문에 새벽 내내 쌓인 눈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대대장을 비롯해 전 장병이 작전도로, 미군지역 제설작업을 함께하며 병사들과 더욱 친밀한 작업시간이 되었으며 장병모두 즐겁게 새해 첫 제설작업에 동참하였다.



◎ 방공경보대, 탄약검사

2009년 1월 19일, 방공경보대에서는 1/4분기 총기, 탄약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생활관 및 헌병반, 작전실, 대대 통합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는 총기를 모두 불출하여 손질하는 한편 총기, 탄약에 대한 실습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최근 북한이 '대남전면 대비태세'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어가는 국면에서 실시한 이번 총기, 탄약검사는 상황 발생시 원활한 개인화력 동원을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현존하는 실제적 위협으로서의 북한'에 대해 재인식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감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 심적 대비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하겠다.



◎ 사관학교, 현장에서 호흡하는 지휘관

- 지휘관 · 참모, 경비초소 · 병사식당 일일 체험

공군사관학교는 12월 23일, 지휘관 · 참모 대상으로 야간 경계근무, 새벽 식당근무 등 근무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 전 지휘관 · 참모가 직접 일선 병사들의 근무를 체험함으로써 근무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병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안정적인 지휘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지휘관 · 참모들은 겨울철 근무피로도가 높은 곳인 경비초소를 찾아 야간 영문 경계 및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새벽에는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병사식당에서 조리 · 배식 · 세탁 · 청소 등의 작업을 직접 체험했다.

이날 기지정문에서 경계근무를 체험한 감찰실장 정광진 중령은 "병사들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부대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9 February



◎ 제1전비, 완벽 제설작전 이상무

제1전투비행단에 1월 첫째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약 37.7cm의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항공기 엔진을 개조해 만든 1전비 제설장비 SE-88은 부대 활주로의 눈을 치우는 주요임무를 띠고 있다. 이 장비는 강한 통풍을 일으켜 눈을 날리며 녹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

1전비측은 9일 오후부터 치열한 제설작전을 전개했다. 제설작전의 선봉은 부대가 보유, 운용하고 있는 SE-88. SE-88(길이 20.3m·폭 13.5m·높이 4.33m)은 폐기된 전투기 엔진을 개조해 만든 장비로 강력한 열기(380도)로 활주로에 쌓여 있는 눈과 얼음을 단숨에 녹일 수 있어 제설작업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상적인 장비이다. 민항기의 결항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밤낮을 가리지 않은 1전비의 완벽한 제설작전으로 민항기의 이착륙은 물론 비행 결항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 제5전비, 상양상에 결의대회

전 장병 및 군무원이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상양상애의 정신을 실천하여 공군에서 가장 즐겁고 웃음과 경쟁력이 넘치는 비행단을 건설하기 위한 금년도 사자성어 상양상애(相讓相愛) 결의대회가 1월 2일 단장님을 비롯한 지휘관·참모와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비행단 사자성어인 상부상승의 정신을 기본으로 상부상승과 상양상에 정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결의대회는 전 장병 및 군무원이 동참한 가운데 "상부상승! 상양상애! 으매! 아자 아자 아자재!"라는 힘찬 구호와 함께 4km 단축마라톤이 이어져 전 장병이 상양상애 정신의 실천의지를 드높였다. 특히 마라톤에서는 상양상애 정신의 성공적인 안착을 약속하듯 전 장병 및 군무원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완주해 그 의미를 더했다.



◎ 제6전대, 한미연합탐색구조훈련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사들이 14일 강원도 태백산 일대에서 적지에 조난당한 미군 조종사를 구조하는 '한미연합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작년 9월 30일부터 미군 조종사에 대한 탐색구조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미군과의 연합탐색구조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15헌비, 소방중대 항공기 소방훈련

제15헌성비행단 시설대대 소방구조중대는 1월 7일 오후 항공의무대대와 합동으로 항공기 소방훈련 및 환자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소방구조중대는 항공작전 중인 항공기에 가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활주도로 이동, 항공기 착륙과 동시에 화재진압과 환자구조를 실시하였다.



◎ 제18전비, KT&G 국군방송 위문열차

1월 13일, 제18전투비행단 일출관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이 개최되었다. 이번 위문열차에서는 18전비 장병들의 노래자랑과 연예사병 및 많은 가수들이 초청되어 열정적인 무대로, 공연팀과 전 장병 및 군가족들이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제20전비, 사랑의 와플 위문행사

제20전투비행단 기지교회에서는 1월 9일 추운 겨울 영공방위 임무에 힘쓰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의 와플, 황금 잉어빵을 직접 구워 나눠주고 위문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군중 목사 대위 김진욱은 단본부에서 시작하여 각 예하부대를 방문해 "사랑의 와플 위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3헌비, 국회 국방위원 부대방문

1월 14일, 3헌비에 국회 국방위원장(김학송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 7명이 비행단을 시찰하였다. 이 날 3헌비를 방문한 국방위원들은 비행단장으로부터 부대현황을 보고받은 후 일선 비행대대에 둘러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최근 전력화된 T-50항공기 Hi-Taxi 체험비행과 SIM 탑승 등을 하며 미래전장에 공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최고의 비행교육대대가 되길 바란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09 February



◎ 교육사, 전용 문자전송서비스 체계 구축

- 문자전송서비스 이용, 교육생 훈육과정 및 교육일정 통보
- 각종 민원처리, 비상연락, 긴급 상황 전파 등에 활용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문자전송서비스가 교육사령부 장병 및 군무원들 사이에서도 일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는 부대 내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사령부 전용 문자전송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체계를 구축하고,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공군은 이미 07년부터 문자전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사령부에서 공군의 문자전송서비스 총 사용량의 20%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군에 입대하여 기본군사훈련과 특기교육을 받게 되는 교육생들의 가족들에게 문자전송서비스로 훈육과정 등을 안내하다 보니 사용량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교육사령부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때면 공군본부 문자 전송체계에 영향을 미쳐 발송시간이 지연되고, 메시지가 손실될 우려도 발생한다. 이에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에서는 SMS 서버 1대와 전송장비 등을 마련하고 인트라넷 문자 송·수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사령부 전용 문자전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교육사령부 문자전송서비스 체계는 전송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문자수신기능을 자체 개발하여 입대장병들의 가족들이 교육생들에게 부대 대표전화로 격려메시지 및 가정소식을 문자로 보내고, 부대에서는 이를 조회/인쇄하여 교육생들에게 전달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 '조태선' 원사, 소년원생 선도에 앞장

- 청소년 선도와 취업지도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군수사령부 정비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선도에 관심

군수사령부에 근무하는 항공기 정비사가 소년원에 재소 중인 청소년 선도활동에 따른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수사령부 81항공정비창에 근무하는 조태선 원사(41세)는 지난 달 29일, 대구소년원 취업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소생 교육활동과 퇴소 청소년의 취업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역 군인으로서 이례적으로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태선 원사가 청소년 선도활동에 관심을 가진 것은 7년 전인 2002년. 그동안 지역 선린종합복지관, 영락양로원, 대구소년원 등 여러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오던 조 원사는 "소년원생들을 위한 선도활동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어, 소년원에 재소 중인 청소년 돕기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섬유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 음식점 종업원 등의 일자리를 알선해 온 조 원사는 "퇴소 후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일이 있겠나 싶어 지역 내의 기업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취업을 도왔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일본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국내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합천군에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짓는 사업을 통해 봉사활동에 눈을 떴다"는 조 원사는 "소년원생 선도와 취업알선 이외에도 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오공고를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한 조 원사는 군수사령부 81항공정비창에서 항공기 기체와 부품, 기골의 노후나 부식 정도를 검사하는 비파괴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명 성학승을 보내며

글 대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사진제공 fomos, osen



'09년 1월 10일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2라운드 7주차 1경기 2세트 성학승 v. 박성균

신추풍령에서 벌어진 경기. 말이 필요 없는 경기. 완벽한 패배...

본인의 전략을 완전히 간파당한 상황에서 성학승의 무탈은 적의 자원수급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고, 테란에게 원활한 앞마당과 4팩토리, 시간이 지나면서 6팩토리를 허용하고 말았다. 신희승이나 박성균을 필두로 요즘 테란들이 즐겨하는 수비적 메카닉 테란에 성학승은 속수무책, 무의미한 히드라+러커 드롭과 함께 패배의 수렁을 향해 가고 있었다.

두 선수가 마주 앉았을 때부터 프로리그 14승으로 다승왕 경쟁을 하고 있는 박성균의 우세가 점쳐지던 상황. 하지만 이날 경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성학승의 공군에이스 은퇴경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찰 나온 박성균의 SCV에 성학승의 드론이 어이없이 죽을 때부터, 경기는 계속 불리하게만 흘러갔다. 제2멀티를 준비하러 히드라를 동반하고 나온 드론만 정확히 사냥해 확장 타이밍을 늦춘 박성균의 별처들, 무탈이 들어올 길목길목마다 시퍼런 칼날을 갈고 서 있는 수많은 터렛

들, 그러는 사이 쌓여만 가는 박성균의 업그레이드 골리앗과 탱크들... 그에 비해 너무나도 빈약한 성학승의 히드라와 러커들...

경기가 끝나고 박성균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성균에게 유리했고, 경기는 더 이른 시간에 끝날 수도 있을 정도였다. 다만 박성균이 계속 수비를 하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끝나고자 했던 의도대로 되었을 뿐... 승리의 성 병장의 은퇴경기가 비록 승리는 아니라도 감동의 은퇴경기가 되기를 바랐던 나의 바람은 그렇게 10여분 만에 허무하게 끝이 났다.

성학승

전용준(캐스터) : 부장저그 성학승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김도형(해설) : 승진했나보죠...

향년 18세, 교복을 입고 강자들을 물리치던 그 시절부터 나이에 비해 상당히 중후했던 외모로 부장저그라 불린 성학승만큼 파란만장한 프로게이머도 드물 것이다. PLUS(현재는

없음)의 외로운 에이스. 2003년 라이프존배 팀리그에서 그는 홍진호, 성준모, 송병석, 최인규, 조용호 같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물리치고 혼자 7승을 거두며 팀을 3위로 이끌었다. 명문 KTF를 옮길하고 PLUS를 원맨팀으로까지 불리게 한 그는 SKT로 이적한다.

당시 성학승의 SKT 이적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PLUS 팬들로서는 마치 토트넘의 캐릭과 베르바토프를 알뜰게 빼가는 맨유를 보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PLUS의 에이스였으니까. 최고였으니까. 당시 E-SPORTS 판에서 성학승의 가치는 지난해 EPL에서 베르바토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2001년 KPGA투어에서 저그 대마왕 강도경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2002년 KPGA위너스 챔피언십에서는 임요환, 김정민을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당시 최강의 포스를 자랑하던 폭풍 홍진호마저 3:2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한 그는 02~03시즌의 별이었다.

하지만 성학승은 SKT 이적 이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 2005년 11월 최연성과 팀플로 철의 장막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경기 이외에 기억나는 경기가 없을 정도였다. 팀 리그는 물론 개인리그에서도 16강 저그의 원조로 불리며 매년 16강에서 탈락했다. 2005년 SKT는 프로리그 전/후기리그와 그랜드파이널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지만 그때 팀의 중심이 된 저그는 박태민이었다. 팀플마저도 삼성으로 떠난 이창훈의 빈자리를 성학승이 아닌 윤종민이 메우고 있었다.

뜬다우 마우스 이윤열, 우승자 조용호, 서지훈 등 1984년생 클럽에서 초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성학승이었지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공군 에이스로 오게 된다.

승리의 성 일병

2005년, 성학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CYON MSL에서 4강에 오른다. 천적 박정석을 무릎 꿇게 하고 오른 4강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테란'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라며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그래도 그렇게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가 싶었던 성학승은 다음 시즌에서 또다시 16강 저그로 전락하며 공군 에이스 입대를 전격적으로 결정한다. 군 입대 고별전에서 김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유종의 미'

를 거두었던 그는 공군에이스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다.

2007년 5월, 일병 성학승은 친정팀 SKT의 도재욱을 비롯해 허영무, 최옥명, 장욱 등을 물리치고 오히려 임요환보다도 높은 팀 기여도를 보인다. 특히 5월 22일 김윤환을 2차례나 꺾으며(에이스결정전 포함) 팀에 4번째 승리를 선사한 그날, 사람들은 16강 저그 성학승을 '승리의 성 일병'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사양 유닛이 되어버린 초반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에서, 본진 구석에 몰래 해치리를 짓고 4해치리 뮤탈+저글링으로 상대방을 화끈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에서, 2001년 기적적인 승리를 많이 거두어 '오투기 저그'라 불리었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 모습을 공군에이스 팬들은 다시 보게 된다.

그렇게 임요환과 함께 공군에이스의 07시즌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팀을 지탱하던 그는, 08시즌에서 이주영이 가세하고, 박대만이 승수를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출전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승리의 성 일병' 소리를 들은지도 오래됐다 싶었던 08~09시즌 1라운드에 이르러서야 다시 불꽃을 지핀 성학승은 강도경, 조형근이 전역하고 이주영과 들어서 외롭게 버티고 있는 공군에이스의 저그라인을 책임지며 끝끝내 '승리의 성 병장'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1월 10일, 감동의 은퇴경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결국 멋진 경기를 선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그는 공군에이스에 지출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기고 다시 바깥으로 돌아간다.





- ❶ 2005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CYON MSL에서 4강에 진출한 당시
- ❷ 2007년 5월 22일, SKT와 경기 후 사람들은 16강 저그 성학승을 '승리의 성 일병'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 ❸ 2009년 1월 10일, 공군에이스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난 후

무명

성학승의 아이디는 무명(MuMyung)이다.

무명은 옷감의 한 종류이다.

무명(無明)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의 하나이다.

무명(無明)은 이광수의 소설이다.

무명(無名)은 이름 없고 보잘 것 없음을 뜻한다.

무명(武名)은 무(武)로 쌓은 이름과 명성을 말한다.

성학승이 어떤 생각으로 '무명'이라는 아이디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겸손한 느낌이 든다. 무명, 즉 면포(綿布)는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며 촉감이 좋고 가격이 싼 편이라 실용적이다. 속옷이나 여러 가지 의류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혼방하여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옷감 '면포'의 의미로 무명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오영종의 아이디 'Anytime' 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겸손하다.

인간의 존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 무지(無知)이며,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원인이 되는 무명(無明)의 의미라면, (상당히 심오하여 해석을 붙이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역시 본인 능력의 부족함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이름 없음'을 뜻하는 무명(無名)도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무명(武名)만이 본인의 욕심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조용한 아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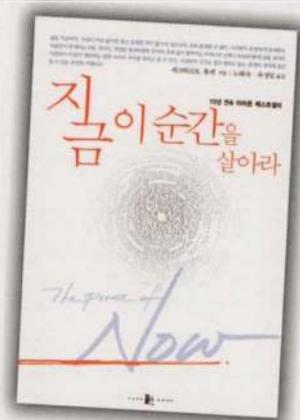
어쨌든 무명이라는 본인의 아이디처럼 성학승은 PLUS에서 SKT에서 공군에이스에서 언제나 있었지만, 그 중심에서 빛나지 않았던 은은한 선수로 남았었다. 하지만 무명옷감이 비단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서민의 사랑을 받으며 길고 끈질긴 생명을 이어왔듯이, 많지 않아도 열광하지 않아도 그의 경기를 조용히 좋아하는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빛날 선수가 될 것 같은 예감도 든다.

성학승은 공군에이스의 선수였다. 그의 무명(武名)은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또 한 줄 남게 되었다. 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2002년 여름 배낭 하나 등에 걸치고 백두산 천지를 홀로 여행한 경험이 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오른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였다. 그러나 '감동'이라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백두산 천지를 마주하며 처음 느낄 수 있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천지(天池)에는 천지를 못 본 사람들이 천지(天地)라는 말이 있다. 백두산 정상에 날씨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화창한 상태로 천지를 대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런 면에서 천지의 온전한 모습을 두 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평생 손에 꼽을 만한 충격적인 행운이었다. 더욱이 자욱한 안개 속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불현듯 쏟아지는 햇살아래 확연히 드러난 천지의 자태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진정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의 찰나적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다. 동해 바다 같은 검푸른 천지의 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무릎은 저절로 접히며 두 눈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면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천지의 깊은 물빛에 감응하며 날날이 흠어지는 오묘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시간을 넘어선 '영원'의 영역에 편입되며 '지금(Now)', '여기(Here)'에 현존하는 나의 존재를 체험했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나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이 배제된 진정한 '현재'에서 있었다. 물론 그 시간은 짧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 '영원(永遠)' 속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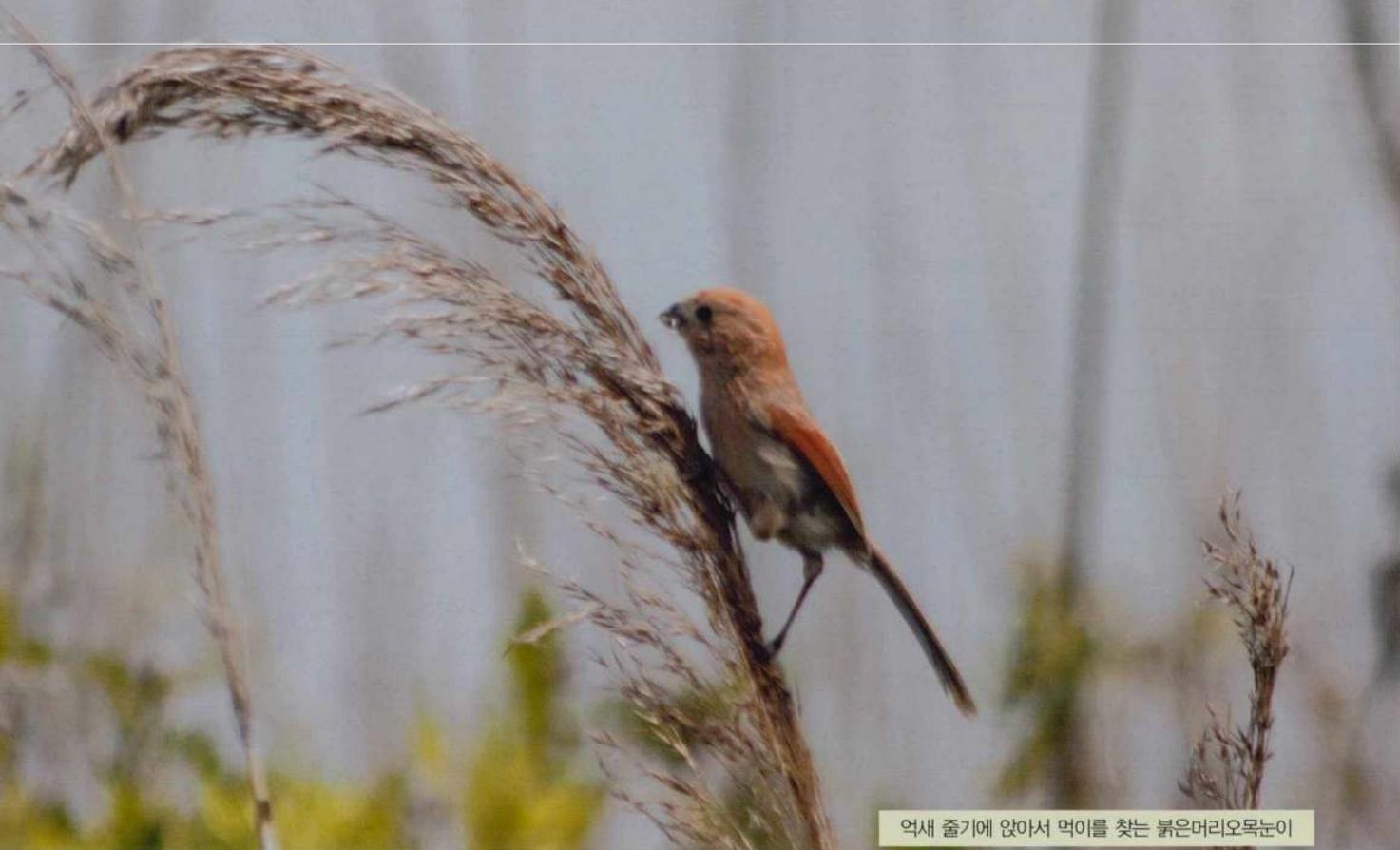
나는 독자들도 분명 이와 같은 체험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고통이었던 쾌락이었던 아니면 독서삼매와 같은 몰입이었던 짧은 시간이나마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마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아지경에 빠져

본 사진은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특별했던 경험을 일상으로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원제는 「The Power of Now」다. 깊은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며 삶의 의미를 상실했던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어느날 문득, 삶의 무게 속에 자신을 다 포기해 버리는 순간 벼락처럼 찾아온 자신의 '현존(現存)'을 체험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만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를 괴롭혔던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재에 완벽히 접속하는 순간 몽땅 사라지면서 자유로워짐을 체험한 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현재에 완전히 몰입해서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한 순간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을 리플레이하고 미래의 불안을 스케치하면서 현재를 죽이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라. 아마도 상당수의 독자는 이 질문에 당당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의 에너지틱한 운동과 들숨과 날숨의 교차지점을 알아차리면서 산다면 우리는 '지금(Now)'이 주는 엄청난 생명력과 힘(Power)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정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순간을 의미하며 그 순간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말해준다.

우리의 인생을 우연히 태어나서 단순히 살고 죽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우주적 코미디일 것이다. 이 책은 인생이 결코 코미디가 아닌 '신비'이며 의식의 진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임을 말해주고 있다. ㉮



역새 줄기에 앉아서 먹이를 찾는 붉은머리오목눈이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 뱀새

가장 작은 새

우리 주변에서는 새에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는데 뱀새에 관련된 속담은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한다. 그 중에서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것이 참 재미있다. 황새의 가랑이는 얼마나 크며 뱀새는 얼마나 작기에 이런 속담이 생긴 것일까?

이 속담을 들어본 분이라면 한번쯤 이 새들의 가랑이 크기에 대해서 상상해 보았을 것 같다. 황새와 뱀새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이 속담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웃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새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어쩌면 뱀새와 황새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뱀새의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합쳐도 황새의 머리보다 작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토록 작은 새가 커다란 황새의 걸음을 흉내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아마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에

승부를 걸지 말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날개가 있으니 날아가면 되지 않겠는가?”하며 반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안 된다. 황새는 시베리아에서 이곳까지 먼 곳을 날아오는 커다란 날개를 가진 새이고 뱀새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며 작은 나뭇가지나 촘촘한 역새 사이를 날아다니는 날개가 아주 작은 새이기 때문이다. 이 러니 다리와 날개 그 어느 것으로 비교를 하여도 뱀새는 절대로 황새를 따라 잡을 수가 없다. 황새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겨울철새(예전에는 텃새였지만 멸종되었음) 중 가장 큰 새이고 뱀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텃새 중 가장 작은 새이기 때문이다.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생활

뱀새의 정확한 이름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특히, 농촌에 사는 분들은 뱀새라는 이름으로 많이



조팝나무 사이에 있는 동지(나뭇잎이 떨어져야 볼 수 있음)



뱀새 동지와 알

알고 있다. 겨울에 이 새들이 민가 근처를 무리지어 날아다니며 '배배배뱀' 하고 서로를 부르며 이동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새는 크기는 매우 작지만 부리가 단단하여 풀씨나 작은 열매를 즐겨 먹는다. 특히 조 같은 알갱이가 작은 곡식류들을 좋아한다. 여름에는 주로 곤충류들을 좋아하는데 작은 나뭇가지나 갈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붙어있는 애벌레들을 잡아먹는다.

이 새의 동지는 정말 과학적이다. 짙레나무, 흰말채나무와 싸리나무 같은 크기가 작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들 속에 동지를 만드는데 보통 새들하고는 달리 나뭇가지가 갈라진 곳에 역새와 같은 풀잎을 이용해서 매달아 짓는다. 곁에는 주변의 나뭇잎과 같은 재료를 구해서 함께 엮어 놓는데 위장이 잘 되어 나뭇가지 속에 있는 동지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동지의 안에는 풀의 부드러운 뿌리를 뜯어다 가지런히 정리를 하여서 보온이 잘 되게 완성을 한다. 이 새의 동지를 번식기에는 보기 어렵지만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있는 겨울에는 그 모습이 드러난다. 한창 번식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무성한 잎에 가려져서 거의 발견할 수가 없도록 위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슬픔이 있는 새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워낙 크기가 작고 동지도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이 새의 동지만 노리는 새가 있다. 동지 속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어치가 있기도 하지만 동지 자체만 노리는 또 다른 새가 있으니 우리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는 뺨꾸기가 바로 주인공이다. 뺨꾸기는 이 새의 동지를 찾아내어 동지 속

에 자신의 알을 한 개씩 낳는다. 물론 자신의 알을 낳을 때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알을 한 개씩 없애는 치밀한 준비를 한다. 새가 숫자 개념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일단 뺨꾸기의 알은 작은 새의 동지에서 부화를 하게 되는데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알보다 며칠 먼저 깨어난 뺨꾸기의 어린 새끼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같은 동지에 있는 아직 부화되진 않은 알들을 등으로 밀어서 동지 밖으로 밀어낸다. 이때 어미새는 그런 횡포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만 본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이렇게 깨어난 뺨꾸기의 어린 새끼를 아주 극진히 키운다. 마치 자신이 낳은 새끼인 양... 이렇게 자신의 새끼들을 해친 뺨꾸기 새끼를 키우고 그 뺨꾸기는 성장하여 다시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동지에 알을 낳고... 이런 반복적인 뱀새의 삶은 그저 슬프다고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뱀새들이 늘 이렇게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는다. 숙주로 이용당하는 많은 뱀새들도 그에 대응을 하며 많이 진화를 한다. 뺨꾸기의 알과 다른 색의 알을 낳는다든지, 또는 동지를 2개 만들어 한 개는 위장용으로 사용하고 동지 바로 아래에 있는 다른 동지를 사용한다든지 하며 진화를 한다. 어떤 똑똑한 새는 아예 뺨꾸기의 알을 동지 밖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 뺨꾸기는 수시로 자신이 낳은 알이 있는 동지에서 자신의 새끼가 잘 자라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그러다 자신의 알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면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동지를 훼손하는 나쁜 짓을 서슴치 않는다. 결국 뺨꾸기에게 동지가 발견이 되면 뺨꾸기의 새끼를 기르던지 아니면 동지가 훼손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동지가 훼손되면 붉은머리오목눈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여 다시 새 동



둥지 속에서 자라고 있는 붉은머리오목눈이 새끼들



억새 줄기에 앉아서 먹이를 찾는 붉은머리오목눈이



흰말채나무에 있는 둥지(나뭇잎이 떨어져야 볼 수 있음)

지를 만들고 번식을 준비한다.

붉은머리오목눈이의 퇴치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서식하는 곳은 주로 갈대나 억새가 무성한 곳이나 키가 작은 나무들이 밀집되어 자라고 있는 곳이다. 이 조류들이 활주로 주변으로 직접 들어와서 먹이를 취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그 새의 둥지를 숙주로 이용하는 빠꾸기 같은 새들이 활주로 주변의 큰 나무에 앉아서 수시로 둥지를 찾는다. 소쩍새들도 활주로 부근의 소나무에 앉아서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작은 새들의 빈틈을 노리고 있고 황조롱이 같은 날쌔 육식 조류들은 이 새들의 움직임을 하늘에서 정지 비행 상태로 지켜보는 경우가 있다. 즉, 큰새들이 먹잇감으로 선호하는 뱀새들을 노리면서 활주로 상공이나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활주로 주변에는 늘 작은 풀이나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활주로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작은 나무들과 갈대숲의 정리는 작은 나무들을 선호하는 작은 새들의 서식을 방해하여 덩치가 큰 맹금류들의 접근을 예방하는 먹이 사슬 차단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도 논둑의 갈대 숲 속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무리들이 함박눈을 맞으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고, 벼를 베어 내고 새들을 위하여 물을 댄 현대영농의 무논에서는 황새 가족이 여유롭게 먹이를 찾고 있다. 그 곳에서는 뱀새들이 황새를 따라 다니거나 앞지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의 영역에서 서로 좋아하는 먹이를 먹고 자신들끼리 어울릴 뿐이다. “뱀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속담은 사람들이 서로의 분수를 알라고 지어낸 것일 뿐이다.

올해 많은 계획 세우신 우리 공군인들과 독자분들은 너무 무리한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자신의 능력과 분수에 맞는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멋지고 보람찬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독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운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저류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창군 60주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 공군창군 60주년 기념행사 안내

구 분	행 사 명	시 기	비 고
Space Challenge 2009 (4)	① S·C 2009 예선 및 본선	4~5월	고무동력/글라이더/로켓발사대회
	② 순회기동시범/PARADROP	4~5월	기동/구조 시범, 항공기 탑승체험
	③ 지역별 보라매의 날	4~5월	호국백일장, 항공기/무장 전시
	④ 창공클럽 창작활동	4~5월	공군부대 체험, 창작활동 지원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 행사 (19)	⑤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	10월	열병, 시상, Fly-By, 기동시범
	⑥ 무장전시	10월	항공기/무장 및 공군 60년사 사진 전시
	⑦ 경축연	10월	기념식 야간 축하연
	⑧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	10월	국립묘지 참배, 전적지 견학
	⑨ 낙도 어린이 초청행사	10월	기념식/서울 Air Show 초청
	⑩ 공사 개교 60주년 기념식	6월	60주년 경축행사, 항공학술 세미나
	⑪ 공군 항공우주캠프	7~8월	공군만의 특성화된 캠프 운영
	⑫ 열린음악회	9월	60주년 기념찬가, 예능인 선정
	⑬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10월	항공전략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⑭ 세계참모총장회의	10월	국제비행학교 설립 및 비행훈련체계 토의
	⑮ T-50 홍보 국제회의	10월	T-50 홍보 국내·외 전문가 주제발표
	⑯ 비행시뮬레이션대회	10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모의전투
	⑰ 국제우주대회 및 천문의 날	10월	공군 부스, 세미나, 논문 발표
	⑱ 공군역사 세미나	10월	공군의 역사 및 발전방향 주제발표
	⑲ 나도 1일 공군 조종사	10월	60명 모집/최종 4명 선발, T-50/KT-1 탑승 및 2기 국민조종사로 인증 후 활용
	⑳ 하늘사랑 백일장대회	10월	공군관련 주제로 시/수필 구분 실시
	㉑ 공군 역사사진전	9~10월	공군 60년사 연대별/테마별 전시
	㉒ UCC, 에어파워 사진 공모전	4~10월	포털 및 공모사이트와 공동 프로모션으로 공군행사 촬영유도
	㉓ 군악연주회	12월	국민 친밀도 증진 위한 장소/곡 선정

고갯마루

▣ 대위 장동하 | 공군본부 정훈과

어린 시절 나는 눈물이 많은 아이였다.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그리 서럽고 슬픈 일이 많았던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는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 종종 힘들어하곤 했다. 특히 누군가와 긴 이별이라도 할 때면 며칠 동안 깊은 슬픔과 한없는 그리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이별에 대한 아픔을 알아버린 것일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나에게 있어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며 군 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던 동료, 선·후배들과 이별해야 하는 인사이동 시기가 전쟁보다 더 두려운 때인 것만 같다.

나는 그날도 고갯마루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아침부터 외가를 나선 어머니께서는 늦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셨다. 분명히 금방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실 때 맛있는 것들을 많이 많이 사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루 온종일을 기다렸지만 끝끝내 어머니께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울다가 쉬다가를 반복하고 더 이상 지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갯마루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방학이 되면 형과 나는 종종 시골 외가에 맡겨지곤 했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과 낯선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즐겁게 떠나셨지만 그러한 설렘도 잠시뿐, 내가 이별에 서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방학 동안 우리 형제와 떨어지기 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다.

나는 다음날도 고갯마루로 나갔다. 그러나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무리 울어 봐도 어머니께서는 방학이 끝날 무렵에야 우리 형제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이제는 상호조차 기억나지 않는 고갯마루 구멍가게의 주인아주머니께서 내 손에 쥐어주시고자 한 봉지가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그렇게 며칠 동안 매일같이 고갯마루에 올랐다. 아주머니께서는 엄마 잃은(?) 어린 아이가 가여워 보이셨던지 나를 늘 반갑게 맞아주셨고 때론 가게로 불러들여 캐러멜이나 초콜릿을 공짜로 주시곤 했다. 그렇게 시작된 고갯마루의 인연은 그해 방학 내내 나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겨 주었다.

고갯마루에는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처럼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곳에서 내렸다. 물론 저 아래에도 정류장이 있기는 했지만 마을에 가게라고는 고갯마루에 있는 구멍가게뿐이었기에 특히나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 읍내 차부(지금의 '버스터미널'을 어른들께서는 이렇게 부르셨다)에 더욱 많은 상점들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고향에 찾아왔음을 신고라도 하듯이 그 가게에 들러 인사를 하곤 했다.

물론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자식들이 올 무렵이면 버스가 도착할 시간에 맞추어 그곳을 서성이셨다. 요즘처럼 휴대전화도 없던 때에 하루에 겨우 예닐곱 번 들어오는 버스만이 외부와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고 개중에는 도시로 나가서 출세한 자식을 마을 어귀에서부터 마을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해 여름 나는 고갯마루에서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온 자식, 손자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겨운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만남의 장소였던 고갯마루가 불과 며칠 만에 눈물의 바다로 변하곤 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짧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다시 마을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향 부모님께서 바리바리 싸주신 채소며, 장(醬)이며 온갖 농산품을 한가득 챙겨들고는 고갯마루까지 올라와서 버스를 탔다. 물론 떠나는 사람이야 마을 아래에서 버스를 타면 그만이고 무거운 보따리를 서너 개씩 들고 이곳까지 올라오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일부러 고갯마루까지 올라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 고갯마루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귀여

운 손자, 손녀들의 손에 과자나 사탕봉지라도 쥐어주고 싶으셨을 것이고 자녀들이 탄 버스가 아스라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어르신들께서 떠나는 자녀와 손자들을 배웅하는 장소는 반드시 고갯마루여야만 했다. 그러나 떠나는 이도 남아있는 이도 눈물을 흘리며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방학 내내 고갯마루에서 제법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덧 방학이 끝날 즈음, 나 역시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를 데리러 오시는 날 아침부터 고갯마루를 서성였다. 어머니와 헤어졌던 장소에서 다시 어머니를 만났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곧이어 닥친 외가 식구들과의 헤어짐에 나는 고갯마루에 서계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 그리고 바둑이까지, 그 모습이 버스 창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지어야만 했다. 그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사람 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사랑뿐이었음을 나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고갯마루에서 내가 보고 느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눈물과 그리움이 나를 이처럼 시인으로 키워줬는지도 모른다. ㉞

시골버스





뛰는 병장 위에 나는 이등병!!!

취재 · 원고정리 편집실 취재지원 제5전비 정훈실

이병 김홍락(668기)
제5전비 군수전대
탄약관리반



병장 신명철(653기)
제5전비 군수전대
탄약관리반

한 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에 유난히도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던 날, 취재를 위해 제5전술비행단이 있는 곳을 향해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에서 내린 후 부대로 향하는 차안은 미리 주문해놓은 따끈따끈한 피자의 온기로 금방 김이 서렸다. 피자가 식기 전, 부랴부랴 도착한 생활관은 일과시간이 끝난 후라 병사들이 바글거렸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즐기며 <이등병이 쏜다> 5호점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탄약을 정비하는 김홍락 이병과 운전병인 신명철 병장이 바로 그들이다. 5전비 생활관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에 겨울이가고 벌써 봄이 온 건 아닌가(?)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다시 편집실로 발길을 돌렸다. ㉞

신명철 병장님께

오늘로써 벌써 자대에 온 지 한 달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긴 군 생활 중에 얼마 안 되는 신병생활이었지만 지나간 하루하루가 여전히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 하루하루를 더욱 깊이 들어가 보면 항상 신명철 병장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날은 제가 5전비에 처음 왔을 때 같습니다. 자대에 오기 전에 들었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왔던 저는 두려웠고 긴장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 한분이 처음 보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옆집 형처럼 친근하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저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덕분에 제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중에 실수를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셨습니다. 신병으로서의 실수를 이해해준 신명철 병장님의 자상함이었습니다.

군가경연대회를 대비해서 연습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 약간의 몸치였던 저에게 춤은 정말 어려웠고 계속 틀리기 바빴는데 신명철 병장님께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직접 안 되는 부분은 가르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동기 중 유일하게 제가 군가경연대회에 뽑혀서 잊기 힘든 추억도 얻었고 무대를 빛낼 수 있었습니다.

신명철 병장님, 그리고 여기에 일일이 쓰지는 못했지만 하나하나 걱정해주시고 보살펴 주신 우리 무장대대 모든 선임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들을 저도 앞으로 올 제 후임들에게 그대로 베풀어주고 잘 보살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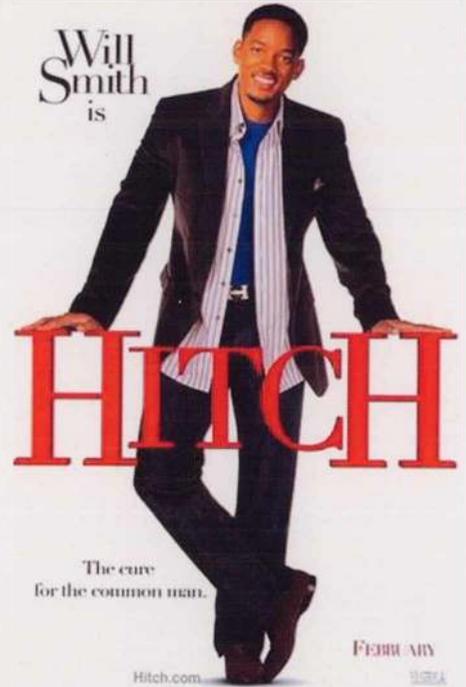
앞으로 남은 군 생활, 정말 가족 같은 선임 분들과 제대까지 보람차게 하겠습니다.

1월 8일 이병 김홍락



'이등병이 쏜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드리고 그 사연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인터넷)

Hitch가 Hitch에게 “누구나, 넌?”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했다〉 지음

blog.naver.com/midomiho

눈치코치 발 빠른 데이트 닥터 Mr. 히치

외화 제목을 한글로 잘 바꾼 제목을 볼 때면 절로 박수가 쳐지는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Something's Gotta Giv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As Good As It Gets〉, 〈박물관이 살아있다 Night at the Museum〉 등! 한글 제목을 잘 지은 영화 한 편을 더 소개할게요. 얼핏 '자동차 편승 여행자 hitchhiker' 처럼 들리는 알렉스 히친스 Alex Hitchens의 닉네임은 Hitch입니다. 〈히치 Hitch〉의 주인공 이름이지요. 히치(윌 스미스)는 뉴욕을 주름잡는 프로페셔널 데이트 닥터 professional date doctor입니다. 우리나라 상영 팬 'Mr.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라는 멋진 제목을 달았지요. Get hitched가 '결혼하다 get married' 이니까 참 잘 지은 영화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히치' 와 '코치' 로 운율까지 맞추는 눈치코치까지 발휘했으니까 말이지요. "그들은 작년에 결혼했다" 를 영작하면 "They got hitched last year." 또는 "They got married last year."가 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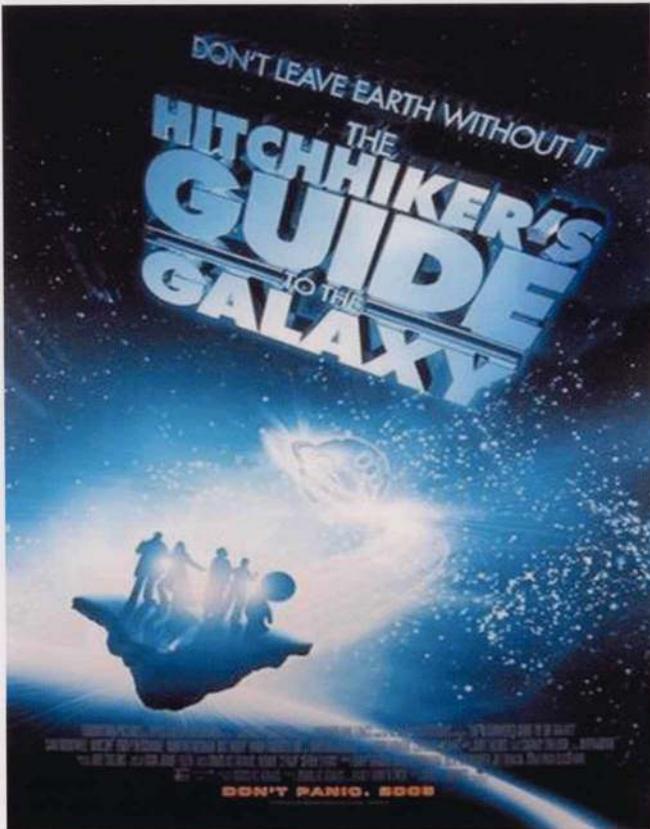
스캔들 전문 칼럼니스트와 눈 맞는 히치

짜지어주기 성공 확률 100%를 자랑하는 히치에게 '대략난감' 의뢰인 client이 찾아옵니다. 데이트 경험 제로에다가

몸짱, 몸치인 간 큰 의뢰인은 놀랍게도 몸짱, 얼짱 상속녀인 알레그라와 데이트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아무리 히치라지만 과연 짜지어주기가 성사될까요? 알레그라는 유명한 celebrity입니다. 스캔들 전문 칼럼리스트 gossip columnist인 사라가 발 빠르게 뒷조사에 착수하지요. 누구 뒷조사? 그녀의 목적은 히치의 짜지어주기 수법과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치는 그걸 눈치 채지 못한 채 사라에게 매력을 느끼고 점점 빠져들지요. 문제는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데이트 코치 전문가가 자신의 데이트를 코치하는 일에도 썩병이라는 것!

"우리 방금 짜지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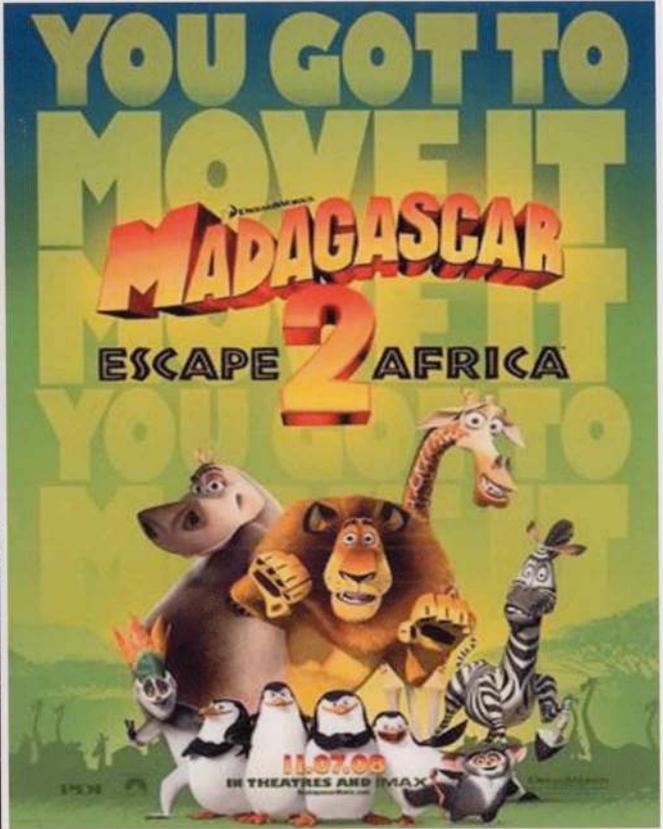
영화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 타고 갈 차에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즉, "Just Married!" 라고 써 붙인 글을 어김없이 발견할 수 있지요.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 2편, 즉 〈Madagascar: Escape 2 Africa〉에는 펭귄 두목 스키퍼와 하와이 특산인 홀라 인형이 신혼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들이 타고 갈 비행기에 적힌 문구는 "Just Hitched! 우리 방금 짜지었어요."입니다. "Just Married!"와 같은 뜻이지요. 눈썰미 있는 관객이라면 '오호~!' 하며 발견했을 거예요. 신부가 될 사람은



영어로 bride-to-be, 신랑이 될 사람은 husband-to-be이지요. 신혼부부는 newlyweds이고요. 신부는 the woman who gets married at a wedding이니까 bride, 신랑은 the man who gets married at a wedding이니까 bridegroom이지요. 결혼식 땀 축배를 들잖아요. 축배는 toast라고 하지요. '~를 위해 축배를 들다'를 표현하려면 'drink to somebody/something'을 활용하세요. "I'd like to propose a toast to the bride and groom. 신랑, 신부를 위해 축배를 제안합니다.", "Let's drink to their future happiness. 신랑, 신부 앞날의 행복을 위해 축배를 드시다."처럼 멋들어지게! 결혼기념일(wedding anniversary)과 관련해서는 영어식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결혼 60주년은 diamond wedding, 결혼 50주년은 golden wedding, 결혼 25주년은 silver wedding이라고 해요.

“겁먹지 마요, 쫓지 마요!”

“Don't panic! Don't panic! 겁먹지 마요! 쫓지 마요!” SF 엽기 코미디 영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에 부지기수로 나오는 대사지요. Hitchhiker에서 hitch가 '자동차를



얻어 타다 to travel by asking for free rides from passing cars'의 뜻일 때는 hitchhike와 같지요. 그러므로 “그는 방학 때마다 히치하이킹으로 세계여행 하는 걸 좋아한다”는 “He likes to spend his vacations hitchhiking around the world”라고 하면 되겠군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동명의 소설책을 각색한 이 작품은 은하계가 무대입니다. 우주인들이 초공간 이동용 우회로 bypass를 만들려다보니 도로 부지에 지구가 걸쳐있는 걸 깨닫지요. 그래서 지구를 파괴하기로 결심하고요. 폭파 직전, 파자마 차림으로 우주를 여행하던 영국인 아서는 우주인 포드에게 구출됩니다. 수년 전 아서가 그를 구해준 인연에 대한 보답으로 말이지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개정판 revised edition을 준비하던 포드는 그때부터 아서와 단짝을 이루는데요, 포드는 그에게 히치하이커의 필수품인 타월을 선물하지요. 하필 왜 타월을 선물하는지는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space odyssey를 통해 충격적인 비밀을 만나게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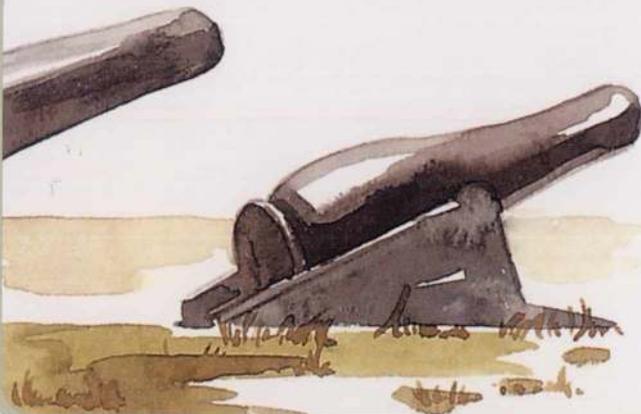


잊어서는 안 될 역사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정치의 중심이며, 초강대국인 미국의 권부(權府) 지체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이라는 말이 생긴 유래를 자세히 알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관저가 언제나 강력한 힘의 상징이 되었던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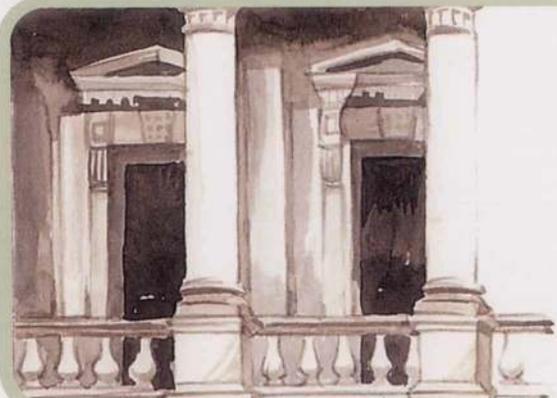
1814년 2월 18일, 신생독립국 미국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초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해상을 통제하면서 미국 선박들을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나포했고, 심지어 미국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영국군에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한 지 30년 남짓했던 미국의 군사력으로만 영국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던 영국군은 수도 워싱턴에 쳐들어왔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을 비롯한 워싱턴 시민들은 도시를 비우고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영국군은 예로부터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던 옛 식민지의 수도를 그대로 두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메오키의사당을 첫 표적으로 삼은 그들은 대통령의 관저를 비롯한 관공서들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이내 일반 주택가와 상점으로 옮겨 붙었고, 인구 8천 남짓의 작은 도시였던 워싱턴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군은 볼티모어에서 미국 민병대에 의해 뜻밖의 일격을 당했고 전쟁은 1815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수도로 돌아온 미국인들의 눈앞에는 시커멓게 타다 남은 대통령 관저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의 모든 벽은 하얗게 칠해졌고, 이때부터 'White house', 즉 백악관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가족들과 기거하는 백악관 2층의 발코니 기둥엔 아직도 과거 영국과의 전쟁 당시 불에 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본토에서 치러진 전쟁이었던 영미전쟁, 세계 초강대국이 된 지금도 미국인들은 그 파배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꽃샘추위에 부족해지기 쉬운 운동량을 보충해주는 비튼 삼각 자세

Parivrtta Trikonasana

≡ 이희주 | 홍익요가연구원 대표원장

“요가의 길에서 발전의 첫 표시는 건강이다.

가벼운 몸, 해맑은 얼굴, 아름다운 목소리

몸에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욕망에서 벗어남이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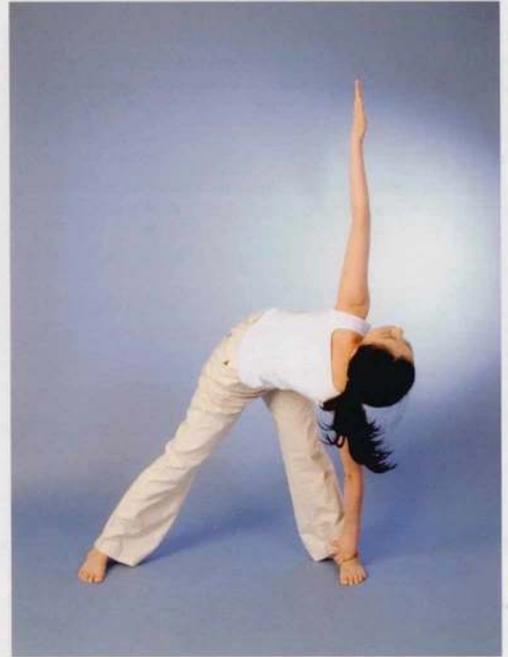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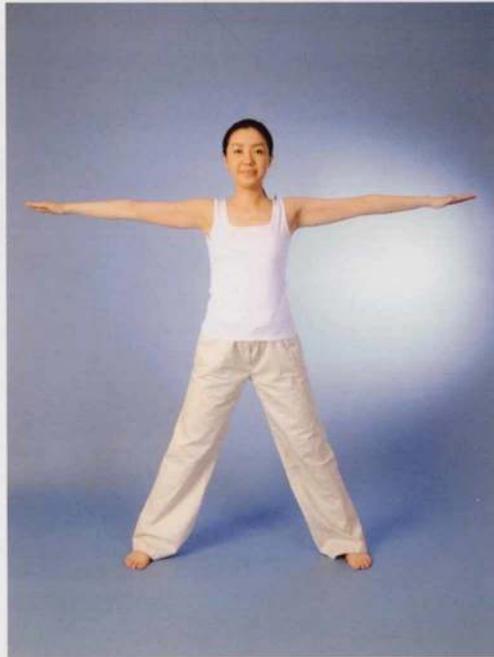
이 시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것인데, 요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퍼질 것입니다. ‘그래 맞아,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지’ 라면서요.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건강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가진 건강하고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그건 내가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편안함과 호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내부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더할 나위없는 행복과 기쁨일 것입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인연을 맺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보며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나로 인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를 느끼며 힘이 솟는 느낌을 갖는지, 아니면 나를 만나면 괜스레 기분이 나쁘고 힘 빠지고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하는지 한번쯤 되돌아볼 일입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은 우리가 각자 새해벽두에 결심하고 세웠던 계획과 목표를 다시 점검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요가를 수련하면서 건강은 좋아졌는데 욕심이 더 많아지고 불평불만이 더 많아졌다면 그건 요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앞의 우파니샤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문장인데, 바로 허망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요가를 제



대로 수련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욕심과 욕망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자신과 남을 정확하게 보는 혜안이 생겨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와 환경이 오염될수록, 주변사람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팍팍해질수록 자신의 건강에 관한 각오와 사람사이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점점 커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세는 실내에서만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틈틈이 따라하여 입춘이 지난 후 찾아오는 꽃샘추위에 부족해지기 쉬운 운동량을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앞의 <우파 니샤드>에서 언급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좋겠습니다. ㉞

〈비튼 삼각 자세(Parivrtta Trikonasana)〉

◇ 방 법

1. 두 발을 어깨넓이의 약 2배로 벌려 선다. 이때 두 발이 11자가 되도록 한다. 두 팔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린다.
2. 숨을 마시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팔을 양 옆으로 쪽 뺀다.
3.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서 몸 상태에 맞춰 오른손으로 무릎이나 정강이 또는 발목을 잡고 왼손은 하늘을 향해 뺀다. 이때 두 무릎을 펴야 한다. 고개를 돌려 왼손 끝을 바라보며 3~5번 고르게 숨쉬며 자세를 유지하며 숨을 내쉴 때마다 허리를 왼쪽으로 더 돌리며 두 팔을 아래 위로 쪽 뺀다.
4.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세워 2의 자세로 돌아온다.
5. 숨을 고른 뒤 반대방향으로 되풀이한다.

◇ 효 과

1. 척추와 골반의 배열과 위치를 바로 잡아 요통을 없애며 자세가 좋아진다.
2. 엉덩이와 다리의 근육과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좌골신경통을 없앤다.
3. 위장과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소화와 배설을 돕는다.
4. 굳어있는 어깨와 목을 풀어준다.
5. 전신의 균사를 없애고 몸 전체의 유연성과 힘을 살려준다.

찾잔 속에 담긴 충절, 고려 충신 정몽주

고려 우왕 13년(1387년)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가 철령 이북 지역을 요동도사의 관할 아래 둘 것을 통보하였다. 1388년 2월 고려는 73세의 노장(老壯) 최영(崔瑩 1316~1388)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8도도통사(八道都統使), 조민수(曹敏修) 장군을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에, 이성계(李成桂) 장군을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에 각각 임명되어 요동 정벌에 나섰다. 그러던 중 이성계가 5월 압록강 하류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여 6월에는 고려 수도 개경을 입성하여 최영을 축출하고, 우왕을 폐위시키며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였다. 뒤이어 새 왕조를 세우는 일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이방원(1367~1422 : 훗날 조선의 3대 태종)이 포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 보고 자기편에 끌어들이기 작정으로 “날씨도 화창하니 자기 집에 와서 술이나 한 잔 나누자”며 초대의를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 1337~1392) 집에 편지를 보냈다. 이방원은 성대한 술상을 차려 정몽주를 맞이하였다. 시작은 예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하자 이방원이 미리 준비해 놓고 하여가(何如歌)를 읊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령첩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어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고려를 섬기다 새 왕조를 섬긴들 어떻겠는가? 우리도 서로 한 편이 되어 오래도록 영화를 누리며 살아보자”는 이방원의 속내는 이미 끝난 고려왕조에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새 나라 창업에 동참하라는 회유와 협박의 내용이었기에 정몽주는 분함과 슬픔을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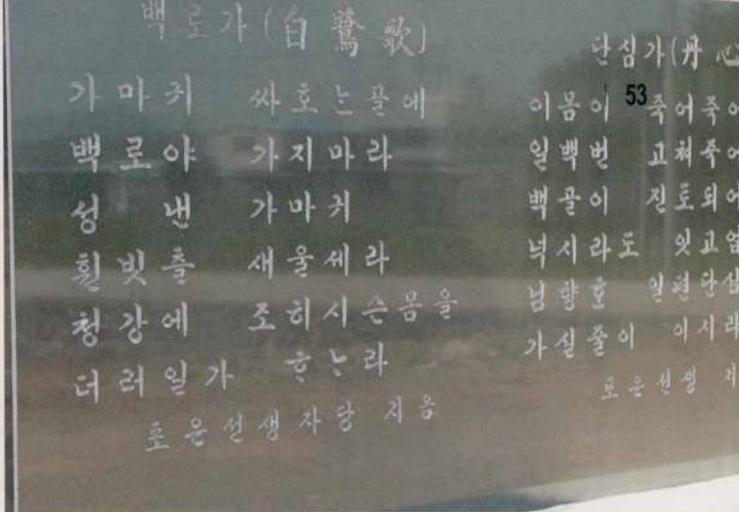
“자네가 시를 읊었으니 나도 시로써 답하겠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닢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포은의 충절을 대변하는 시조로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충신을 찾을 때마다 많이 회자되고 있는 포은문집에 있는 단심가(丹心歌)이다. 고려왕조를 향한 일편단심!!! 정몽주의 충성심은 대나무와 같이 푸르고 곧았다. 백 번을 죽어 뼈가 가루로 부서지고 닢이야 있건 없건 고려왕조를 섬기려는 마음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포은의 결심은 곧 죽음을 택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다. 고려왕조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할망정, 반역자와 더불어 살고 싶지 않았다는 포은 정몽주의 충성심(忠誠心)을 굳게 만든 차시(茶詩)이다.



선죽교(사진제공 : 한국전력공사 장사석 부장)



임고서원의 백로가(白鷺歌), 단심가(丹心歌) 비(碑)

石鼎煎茶(석정전다)

- 報國無效老書生 (보국무효노서생)
- 喫茶成癖無世精 (꼭다성벽무세정)
- 幽齋獨臥風雪夜 (유제독와풍설야)
- 愛聽石鼎松風聲 (애청석정송풍성)

고려왕조는 힘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 서생이 차와 벗하니 새 왕조에 동참하여 부귀영화 찾는 세상에 관심 없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드는 밤 눈보라 몰아치는 서재에서 홀로 돌솥에 물 끓는 솔바람 소리 들으며 고요한 마음에서 충성을 새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이성계측 세력에 힘이 무너지는 나라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포은이 차(茶)와 벗할 뿐, 권력과 부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보라 몰아치는 밤 서재에서 고려의 운명을 생각하며 돌솥의 물 끓는 솔바람 소리에 차를 다려 마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1392년 정몽주의 제자이며 이성계의 친형 이원계의 사위인 변중량이 황급히 정몽주의 집을 찾아왔다. “대감님, 위험하십니다.” “이방원이 대감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단심가로 고려의 충성을 맹세한 정몽주는 변중량을 돌려보내고 어머니께 이성계 집에 병문안 간다며 고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시조를 지어 만류했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 빛을 더럽히나니
창과에 고이 씻는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다음날 정몽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살릴 수 없을 바에야 죽음이 의로운 일임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간사한 무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낙마하여 병석에 누운 이성계의 집에 갔다.

“이 대감께 병문안 왔다고 아뢰어라.”

마중 나온 사람은 이방원이었다.

“병문안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병세는 좀 어떻습니까?”
“별 차도가 없소.”

그 후 두 사람은 별 말이 없었다.

정몽주가 이성계 집을 나와 말을 타고 개성 선죽동 자남산 동쪽 기슭의 개울의 선지교(善地橋)에 이르렀을 때, 어둠 속에서 서너 명의 군사들이 그의 길을 가로 막았다. 그들은 정몽주의 당당하고 위엄 있는 고함소리에 당황한 나머지 철퇴로 말머리를 내려쳤다. 말에서 떨어진 포은은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에게 피살되었다.

정몽주가 죽은 선지교에는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 한 그루가 솟아났다. 그 후에 선지교(善地橋-고려 919년 태조가 송도 시가지 정비 때 축조한 다리)가 선죽교(善竹橋)로 불리고 있으며, 1780년(조선 정조 4) 정몽주의 후손 정호인(鄭好仁)이 주위에 돌난간을 설치하고 별교(別橋)를 세워 지금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다. 다리 동쪽에는 선죽교(善竹橋)라는 한호(寒戶)로 씌어진 비가 있고, 다리 서쪽에는 1740년(영조 16) 어재어필의 포충비(褒忠碑)와 1872년(고종 9) 어재어필의 표충비(表忠碑)가 있다. ㉮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1전투비행단
전재인 준위는 차례(茶禮)문화 연구와 전통 다도(茶道)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헌문으로 된 다신전을 사진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읽는 다신전)을 출간했으며, 생활 속의 일제식민 잔재 청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7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Bird-Alert!은 제가 <공군>에서 즐겨 읽는 글 중 하나입니다. 영국 신사 같은 멋과 김태희를 닮은 눈, 건강한 미인의 다리를 동시에 지닌 물까지! 매력적인 새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해의 첫 <공군>에 공군 장병 및 군무원의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희망 메시지를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작게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요?!

- 서울 영등포구 정영호 -

#2

"공군 ACE" 7연패 뒤 1승 누가 그랬을까? 처음 "공군 ACE"가 출발했을 때 나름 염려도 있었지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 녀석이 너무 좋아하는데 더욱 분발하기를 기원합니다.

<병영 도서관>을 다뤄줬으면 합니다. 병사들의 정신을 살찌우고, 전역 후에도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유지될 수 있는 도서관의 존재를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공군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매월 <공군>을 만나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음식에서 고생하는 많은 현장을 소개하고, 공군으로서 자부심을 곧추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충북 청주시 김기성 -

#3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서 '발칙한 이등병의 생활관 습격 사건'의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서로가 함께하니 피자 맛이 정말 꿀맛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부대로 그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호에는 힘들 때 힘이 되는 명언 같은 것이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생각하는 그림>에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군>에는 젊은 감각,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 이런 시절이 있지만 분명 그때와는 다를 것 같아요. 공군의 펄펄 나는 꺾와 열정을 펼쳐주는 월간 「공군」을 앞으로 더욱 소중히 하겠습니다.

- 전남 여수시 박대길 -

#4

<한송정> 관련 기사를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차를 마시던 곳을 지면으로 읽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유급지원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지원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대 가는 것을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역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병역 기피는 늘어가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 부산 진구 권주희 -

#5

최정예 공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의 공군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 <World-Wide Vision>에서 미국 공군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다뤄주어 우리 공군의 모습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 기획이었습니다. 앞으로 공군 출신 전우들의 활동과 인생이야기를 다뤄줬으면 합니다.

공군의 현안을 진단하는 기획기사와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시리즈성의 기사도 많이 실리면 좋겠습니다. 화보나 구성이 힘차 좋습니다.

- 울산 북구 김창현 -

#6

공군 ACE 7연패뒤 1승, 누가 그랬을까?는 제목도 코미디처럼 특이한데 연습상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다시 2명이 전역한다는 소식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공군 ACE팀의 건투를 빕니다. 다음 호에는 각국의 전투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전투기 생산국과 판매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발행일이 2008년 12월 10일인데 도서관에 오면 15~16일이 됩니다. 책을 보고 연서를 적어 보내면 보통 17~18일 즈음인데, 20일까지 도착이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발간일을 당겨주시고 퀴즈 마감일을 늦춰주세요.

- 부산 진구 박상현 -

#7

<2008년 공군의 한해를 돌아보다> 코너를 통해 최초의 우주인 양성에 기여하고 간군 60주년 기념 화력사범에 참가하는 등 공군의 다양한 활동상을 엿볼 수 있었답니다. '09년에도 새롭게 도약하는 공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군인이 될 수 있는 방법 혹은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공군인이 되고자 합니다.

- 대구 동구 조경희 -

#8

'올해를 마감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해내셨군요.' 하는 생각과 '병상 전우를 살려라' 라는 글이 차지하는 지면은 적었지만 마음만 너무나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골수기증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멋져요! 저는 여성이라 그런지 공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세요. 제 딸에게도 보여주고 싶네요.

- 경북 안동시 권기선 -

#9

<2008년 공군의 한해를 돌아보다>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앙드레 김의 빨간마후라를 조종사의 목에 걸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08년은 건군 60주년이자 공군 창군을 1년 앞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여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발을 맞추어 '선진 정예화된 공군'을 추구하는 훈련과 행사들이 줄을 이었으면 하네요. 이 코너를 통해 여자도 공군이 될 수 있구나 했습니다. 요즘은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얼른 힘내서 좋은 곳에 취직 되길 바라야겠네요^^

- 전북 부안군 정해수 -

#10

매월 공군지를 받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공군을 만드시는 분들이야 매달 고생스럽겠지만, 책을 읽는 독자들은 한 달 한 달이 기다려지며 각 부대 및 공군인들의 소식들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더욱 발전하는 멋진 공군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호에 좋았던 기사는 '미국 공군의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공군들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공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해줘서 자랑스럽고 너무 멋있어요.♡

- 경남 탐안군 윤생결 -

#11

'영국 신사 같은 멋스러움, 물가지 무리들' 평소 근무에 차이다 보니 자연에서의 휴식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기사를 읽고 그나마 안정을 되찾은 기분이 든 것 같아서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한 것 같네요. 2008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잘 보았답니다.

이번 호는 마지막 호인 만큼 유종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든든하게 저의 곁을 항상 머물러 주면서 웃음을 선사해준 공군지에 감사하고 내년(2009년)에도 계속 함께 하길 원합니다.

- 충북 진천군 전재호 -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 한국항공소년단은

기존 청소년단체 활동과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 주고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장병 1인 1구좌(1만원)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
-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 명남빌딩 2층 02)953-7543/www.yfk.or.k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한게 활용됩니다.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2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2월호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2월 20일까지

1. 제56공수비행단의 애칭으로 1991년 GULF전에 참전했던 부대의 이름은?
2. 2008년 공군을 빛낸 인물 중 희생·봉사 부문의 수상자로 총 5회에 걸쳐 다이만 부대에 파병되어 임무를 완수했던 사람은?
3. 공군병 646기로 입대하여 공군ACE팀의 저그라인을 책임졌으며 '승리의 성 일병'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선수의 아이디는?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 12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2. 한송정
3. 미 해군 시험비행학교

당첨자

부산 진구 박상현
서울 영등포구 정영호
충북 청주시 김기성
전남 여수시 박대길
부산 진구 권주희
울산 북구 김창현
대구 동구 조경희
전북 부안군 정혜수
경북 안동시 권기선
경남 탐안군 윤샘결
충북 진천군 전재호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



2009년도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행사 안내

SPACE CHALLENGE 2009

4~5
월

S·C 2009 예선 및 본선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기공식
지역별 보라매의 날
창공클럽 창작활동

6
월

공사 개교 60주년 기념식
특기별 예비역 행사

7~8
월

공군 항공우주캠프
(공군만의 특성화된 캠프 운영)

9
월

열린음악회
공군 역사사진전(~10월까지)
지역별 예비역 행사

10
월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
낙도 어린이 초청행사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세계참모총장회의
T-50 홍보 국제회의
비행시뮬레이션대회
국제우주대회 및 천문의 날
공군역사 세미나
나도 1일 공군 조종사
하늘사랑 백일장대회
UCC, 에어파워 사진 공모전(4월부터~)

12
월

군악연주회
전자 역사관 개관

* 자세한 사항은 41p를 참조하세요.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